

速記界

第 38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 (L.) Lemaine>

현호색과

옛 아낙네들이 전통의상과 함께 즐겨 달고 다니던 화려한 복주머니를
연상시키는 꽃으로 흔히 머느리주머니꽃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중부 이북 명지산과 설악산 한계령 등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흔히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는 아름다운 꽃이다. 높이는 50~80cm
정도로 줄기는 곧게 서고 전체가 녹색을 띤다. 잎은 어긋나고 2회 3출엽으로 긴
자루가 붙으며 소엽은 도란형으로 달린다. 꽃은 5~6월에 피고 분홍색으로 줄기
선단에 총상화서로 나란히 밑을 향해서 달린다.

■ 권두언 : 언제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 신년사 : 말의 기상과 같은 힘찬 출발을 바라며

■ 논단 : 수문의 원리와 실제(下)/홍기표

■ Intersten

- 제43차 인터스테노 총회참석보고/김란희(협회 홍보이사)
- 한일의회속기인들과 우호를 다지다/김란희
- 인터스테노 아시아 회의를 위한 준비모임
- 독일연방의회 시찰을 다녀오면서/한기수

■ 세미나 :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정향인

■ 지방의회 탐방 : 강북구의회를 찾아서/홍보부
재외공관 국정감사(구주반)수행기/장미경

■ 시 : 잠긴 가슴/김영서

■ 단기연수 : 국제인권연구소 연구과정/김미라
선화당일기/장기태

공무원직장협회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필요성/김용성

■ 기자수첩 : 특하면 손대는 속기록

1999인터스테노 참관기Ⅱ/김영중

■ 회원동산

- 벽난로/곽계안
- 남해군 해안일주/이동윤
- 새희망/정혜숙

■ 새내기속기사

- 늘 첫 마음으로/김지숙
- 속기계와의 인연/최혜련

■ 소식

- 협회동정
- 회원동정

■ 편집후기

■ 회비 · 발전기금납입안내/홈페이지 안내

언제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로....

(협회회장)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1년을 어느덧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빠른 듯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며 가슴 설레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을 마감하고 2002년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 보면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 손에 여러 열매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보나, 국가 경제적으로 보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손보다는 조금 비어 있는 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앞을 보며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월드컵축구경기와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우리의 문화, 관광지 등 여러 방면의 홍보와 함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알리면서 더불어 여러 열매를 함께 얻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새해는 임오년(壬午年)으로 말의 해입니다.

古事成語 중에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주(周)나라

때 어느 말 장수가 훌륭한 말을 한 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팔리지 않자 백락을 찾아가 자기의 말을 한번만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락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의 주위를 여러 차례 돌면서 그냥 감탄하는 눈길로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준마(駿馬)라 여겨 서로 앞다투어 그 말을 사려고 해서 그 말의 값은 순식간에 경천 뛰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마(名馬)라도 백락(伯樂)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재다능하며 가장 가까운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보국(記錄報國)의 기치를 앞세우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디지털시대에 우리네 기록문화 또한 새로운 사고와 패러다임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속기인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와 진면목을 참으로 인정해 주는 백락(伯樂)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임오년(壬午年) 새해에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롭게 도약해 봅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속기협회회장 이희규

말의 기상과 같은 힘찬 출발을 바라며

(협회이사장)

임오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말 달리며 대륙을 호령하는 기상을 지니며 살았습니다. 말의 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라며 대한속기협회도 회원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결집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뉴 밀레니엄도 두 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해, 같은 날이 반복되지만 새로운 해를 구분하는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자신을 거둬나게 하며 삶을 새롭게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아침, 새 희망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십시오. 최선의 노력은 이 모두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작년 2월 협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대한속기협회의 위상제고와 각종 협회사업의 활성화, 새로운 사업개발의 추진이라는 협회운영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그러한 운영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의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는 다시 한번 속기인들의 화합과 저력, 가능성을 확인한 한마당이었으며 속기경기대회, 지방의회속기사연수 등을 통한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소식지 발간 및 협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 대내외 홍보활동에도 주력했습니다. 또한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제43차 인터스테노총회 참석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그동안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속기인 모임체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을 한해는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국제화 시대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자기계발의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속기협회의 힘은 회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으로 준비한 행사라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협회에서는 연수·시찰 등의 확대와 학술세미나의 강화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21세기, 디지털시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첨단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류 속에서 살아 남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주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속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속기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각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생산해 내는 막중대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와도 직결됩니다. 누구나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편견을 버리고 멋있게 수용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 나갑시다.

회원 여러분!

대한속기협회는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발전이 협회의 발전이며 협회의 발전이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속기협회이사장 신희동

수문의 원리와 실제 (下)

홍기표

먼저 여러 회원들께 사과부터 드려야겠다. 지난 호 본문에 ‘얼토당토한’이란 어휘가 두 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다’란 단어는 어느 국어사전에도 없다. ‘얼토당토않다’란 단어가 있을 뿐이다. ‘안절부절하다’가 아니라 ‘안절부절못하다’이듯이. 그런데 ‘얼토당토않다’란 ‘얼토당하지도 않다’의 준말일 터, ‘얼토당하다’란 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일반 국어사전에서는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지음)에만 등재되어 있었다. 그 의미는 ‘가당하다’의 사투리라는 것. 그리고 ‘얼토당토않다’란 ①‘도무지 가당치 않다’ ②‘전혀 관계가 없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토당하다’란 본래의 낱말은 지금 사어화(死語化)되어 사투리 취급을 받고 있고 ‘얼토당토않다’란 단어만 남아 있는 셈이다. 큰 오류를 지적해 주신 정순화 회원께 감사를 드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과를 드린다.

새로이 알게 된 사실 하나 더. 의존명사 ‘등’에 대해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 뒤에 쓰여)열거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내거나 그것들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 전남, 경남 등 3도 유격대”란 예문과 함께. 지난 호에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식 사전의 설명에 얽매어 어색한 문장을 그대로 남겨 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 구구한 변명일 뿐, 부끄러운 마음을 접고 이만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

5.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챙겨야 한다.

구두점을 바르게 챙기고,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 이것은 비단 속기록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글쓰기의 기본원리이다. 문자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기록 작성 또한 넓은 의미의 글쓰기라 할 때 이러한 기본원리는 속기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기록의 정확성을 제대로 챙기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음성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어휘’를 정확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 하나하나의 어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언어의 ‘의미’를 또한 정확히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음성언어는 발연과정이나 전달과정, 청취과정의 3단계 과정에서 ‘발언자가 의도하지 않는’ 오류를 동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3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오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속기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고도의 청취력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취력이란 듣는 이의 어휘력과 이해력에 의해 결정된다. 어휘력과 이해력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음성언어상의 오류를 순간순간 교정하면서 청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휘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오류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지나치기 쉽다. 따라서, 속기 업무에 있어서 청취력의 결여는 속기록의 정확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취력의 결여는 속기록의 신속성에도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정확성도 기하지 못하면서 번문은 번문대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부터 청취력이 사오정이라면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긴답시고 원고를 붙들고 있어 봤자 왜곡현상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속기록상의 오청?오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기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취력 향상이 절대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청취력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상식과 함께 실무경험의 축적 속에서 갖가지 음운현상에 대한 지식을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몇 년이나 경주하면 완벽한 청취력을 구비하게 될까. 한마디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발연내용이 자

기 수준에 맞고, 또박또박 표준어만 구사하는 경우라면 간혹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과 수준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그 의미와 뉘앙스까지를 완벽하게 문자언어로 되살려 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 속기록에는 불가불 오류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류도 오류 나름이다. 발언 내용의 핵심적인 어휘들은 아무리 고도의 전문용어라 해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또한 상식 수준의 평범한 어휘를 오칭한다든가 10년, 20년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는 것은 속기사로서의 자질과 자세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속기록상에 나타나는 갖가지 오류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속기인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업무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1) 청취력은 어휘력이다

청취력은 어휘력과 비례한다. 어휘력은 일반적으로 독서량과 비례한다. 일상의 평범한 어휘들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오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①법조문은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르고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 ②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라든지 회의 중인 기업,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도덕적 회의에 빠져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불법으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③최근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로펌들의 몸집 불리기 현상과 관련해서 젊은 판사들에게 진직을 유도하는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속담을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르고’라고 변형시켜서 발언했다. 그것을 ‘아에서 어에서’로 청취한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도덕적 회의’로, ‘몸집 불리기’를 ‘몸짓 불리기’로. 일상의 어휘들이 이렇듯 엉뚱하게 청취되는 것이다.
- ④헌법적 가치가 하위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되고 헌법적 기본권이 횡행화되었을 때
- ⑤우리는 전문성도 없이 뭐 모르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의제이라고 사법개혁에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서 일을 하니까 법률연맹에 한 65개 단체가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누르려면 또 모여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⑥책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문제는 적어도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을 허가하자는 것입니다.(→차한에 부재하자는 것입니다.)

‘형해화’란 어휘를 ‘형행화’로,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이의제의’로 오칭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어휘력의 한도 내에서만 청취가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문이라 하겠다. ⑥번 예문은 남북평화협정 조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었다. ‘차한에 부재’라는 어휘를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던 듯. 그러니 이를 제대로 청취하기가 버거웠을 것이다. ‘차한’을 ‘사용’으로 청취하고 나니 ‘부재하자’라는 말이 전혀 이해는 안 되고, 자기 수준에 맞추어 ‘사용을 허가하자’로 바꾸어 버렸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또한 상식이 풍부함을 뜻한다. 상식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가끔은 접할 수 있는 내용이요, 어휘들이다.

⑦우리 경제가 죽어야 할 환자입니까, 아니면 실업용 모르모트입니까? 굳이 무엇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박장대소를 했을 테니까. 왜 박장대소를 해야 하는지 ‘?’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바빠 서두르다 초래된 오류일 것이다.

⑧미국의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AFL, CIO처럼 이견 ‘말하는 대로 정확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정확히’ 기록한 것이다. 이 또한 상식의 부족으로 초래된 오류이다. 마치 AFL, CIO라는 2개의 단체가 미국의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것으로, ‘AFL-CIO’는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연합체 이름이다.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그 영역에 따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속기사는 언제, 어떠한 내용이든 이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따라서 속기사의 어휘력은 단순한 상식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예문들을 보라.

⑨분명히 어떤 폭행?협박 수단을 사용했고, 돈을 빼앗은 것이 사실인데 강도죄라는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죄라고 범죄인을 방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리과정에서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고인 방어권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범위 내에서 검사가 스스로

강도죄가 안 되면 공갈죄로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해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⑩이런 아황산가스 말고도 산이나 숲 사이에 길을 내는 소위 人道는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생태에 가장 어울리는 人道를 내지 않으면 그 人道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분열이 되고 한쪽의 동식물들이 滅種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못된 人道는 생태계의 삼팔선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구속요건’으로, ‘林道’를 계속해서 ‘人道’로 기록하고 있다. 청취력은 지식과 비례한다고 했다.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만 가지고는 속기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넓은 상식과 다방면에 걸친 지식은 유능한 속기사의 기본조건이다.

2) 청취력은 이해력이다

①현재 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대부분 부도난 업체나 하위업체나 워크아웃 업체, 이런 시급히 처분해야 될 자산이 많은 그런 부실 또는 정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상적으로 접하는 평범한 어휘라 해도 그 발언내용을 이해 못 하면 정확한 청취가 어렵다. 위 예문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오류 또한 눈치챈 것이다. ‘화의업체’를 ‘하위업체’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번문 과정에 문자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 준다.

②전업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득이 갑니다.

③인재 등용할 때 남녀 선별해서 동등할 수 있도록 채용해야지 전업해서 긍정적인 이득이 있으면 전업을 안 하면 부정적인 손실이 있는가. 이를 바로잡으면,

→ 잔업도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득이 갑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데 남녀를 ‘선별’해서 ‘동등’할 수 있도록 채용한다? 이 율배반이다.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영 어색하다. →남녀 성별에서 동등할 수 있도록...

④이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도 모르게 경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사회예요.

음성언어가 불분명한데다 속기사의 이해 부족이 초래한 오류이겠다. →

정치적 人事예요.

⑤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官許, 官署費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

관허, 관서비란 도대체 국가예산 어디에 속하는 비목인가. 발언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음절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 평이한 어휘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새로운 전문용어(?)를 탄생시켰다. →관의 간섭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⑥과거에 대량 생산해서 수출까지 되었던 굴 양식이 최근에 와서 많이 감소하고 있고, 존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존폐를 확보해? 설사 ‘種貝’라는 용어를 몰랐다 해도 내용상 굴 양식과 관련된 용어일 것이라는 것쯤은 짐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⑦중국 문화권과 일본 문화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마치 이것이 1차전쟁 이후의 상태 그러니까 주로 갑오경장 이후의 상태와 비슷하게 갈 것이 아니겠느냐

‘1차전쟁’은 1차대전을 말함인가? 그러면 1차대전은 언제고 갑오경장은 언제더라? 기본적인 역사 지식의 결여, 아니라면 ‘들리는 대로’의 속기가 초래한 오류이다. ‘1차전쟁’은 ‘일청전쟁’의 오류다. 이렇게 전후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록을 남기게 되면 속기사 자신의 유식하지 못함을 사초 속에 영원히 남기게 된다는 사실. 무섭지 아니한가.

⑧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근처 평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기구대가 되겠습니다.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기구대’란 또 무슨 뜻일까?

→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이면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 평양 근처 평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地溝帶가 되겠습니다.

말한 대로 옮겨 놓고 구두점만 제대로 챙겨 주어도 될 것을 내용 파악도 없이 수문을 하려 했던 것 같다. ‘기구대’는 ‘지구대(地溝帶)’의 오칭이다.

⑨이 정리계획안에 반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제199조, 제228조, 아래에 저희가 참고로 조문을 달았습니다.

제23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수정명령, 제190조에 있습니다. 정리계획안의 배제, 제199조 또는 법원에서 정리계획안 불인가 결정, 제233조에 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예문을 읽고 내용이 단번에 이해가 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그는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아니면 대단한 언어감각의 소유자다. 평소 글 깨나 읽는 사람이라도 내용 파악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속기사 자신부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만 기록해 놓은 탓이다. 이해를 했더라면 “조문을 달았습니다.”란 종결어미가 나오기 무섭게 기계적으로 줄을 바꾸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두점 하나를 제대로 챙기려 해도 발언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예문이다.

→이 정리계획안에 반영되는 경우는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제199조, 제228조(아래에 저희가 참고로 조문을 달았습니다.), 제233조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수정명령(제190조), 정리계획안의 배제(제199조), 또는 법원에서 정리계획안 불인가 결정(제233조)의 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어휘의 적합성 여부를 음미해 보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기록상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어휘력과 이해력의 부족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어휘력과 이해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소 폭넓은 독서(신문이든, 잡지든)나 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그러나 속기업무는 발등에 떨어진 불. 불가불 시간은 좀 지체되더라도 원고 검토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상황에서는 편집인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며, 실무 속기사들 또한 평소 문맥상 어휘의 적합성을 꼼꼼히 음미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정비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사항과 국가안보 현실 등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사항’으로 오칭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속기록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의 발음이 ‘상항’과 ‘사항’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속기사는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뜻이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들리는 대로 기록할 경우 발언 내용이 전혀 달라짐을 명심하라. 추진사항/추진상황, 점검사항/점검상황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아래 예문들 중에는 각각 1개씩의 오류가 숨어 있다. 차분히 음미해 보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음미해 보라. 곰곰 음미해 보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다.

②연차가 차면 고위 공직자가 된다고 하는, 종래의 관행을 지향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③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더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④영장실질심사제도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회에서 엄청난 곤혹을 치른 끝에 이것이 입법이 된 것입니다.

⑤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금리가 집행부처에 따라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서

⑥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에 매달려 騎虎之勢의 대중적 처방만을 계속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입니다.

⑦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로 추종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피고인의 복장이 일반 불구속피고인과 다르다고 하여 무죄 추종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⑧정부는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부고속망으로 연결하는 등 전자정부의 기반을 그동안 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⑨항상 우리 사법부의 발전과 계획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 예문들에서 오류로 나타난 어휘들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너무나 평이한 것들이다. 그런데도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음절 하나하나에 집착하다 보니 비슷한 음의, 그러나 전혀 다른 뜻의 어휘로 오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오류로 인해 독자들은 잠시나마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물론 무심코 읽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속기록

은 깨어 있는 몇몇 사람들을 기준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⑩저는 최선을 다해서 몸과 정성과 지혜와 능력을 모두 바쳐서 우리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숭고한 대통령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숭고한 정신’ ‘숭고한 희생’이란 말은 들어보았으나 ‘숭고한 대통령’이란 말은 듣느니(아니, 읽느니) 처음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그렇게 오칭한 것이다. 숭고한 국무총리, 숭고한 장관, 웬지 어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어휘의 적합성에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오류이다.

4) 조사(助詞)를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어는 교착어로서의 특성상 조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밝혀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언뜻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의 오역이나 오칭은 발언내용 전체의 의미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 역할이 작지 않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①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규모는 시가로(→규모와 시가는) 어느 정도이고

②5월부터 7월까지의 출력을 80%를(→80%로) 낮췄다가 8월부터 지금까지는 100%(→100%로) 올렸습니다.

밑줄 부분의 잘못된 조사를 괄호 안의 조사로 바로잡은 것이다. 별것 아닌 조사 하나가 발언내용을 이렇게까지 확 바꾸어 놓았다. 조사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하지 않는가.

③법관들이 법관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긍심과 명예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원 내외부에 지속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관형격 조사 ‘의’는 통상적으로 ‘에’로 발음한다. 속기사는 마땅히 ‘의’로 받아 적어야 한다. 이런 오류가 속기록에는 비밀비재하다. 전형적인 ‘말하는 대로’의 오류다. 장시간의 발언 중에서 잘못된 조사 하나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는 하지만 앞뒤 문장의 문법적 상관관계를 조금만 짚어 보면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다. 짧은 문장 속에서는 쉽게 잡아내지만, 긴 문장일 경우 자칫 쉽게 놓쳐 버리는 이들은 특히 문법적 안목을 기르는 데 노력할 일이다.

④소 의원께서는 한국전쟁 전후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통합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발언자는 ‘전후의’를 ‘전후에’로 받음했다. 속기사는 그것을 ‘전후해’로 오청하고 그대로 기록했다. 문법적 안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웅변해 준다.

⑤현재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00년 2월까지 66개소 전산화 등기소를 전환되었고, 2003년 말까지는 전국 모든 등기소에 전산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말하는 대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음성언어는 발언자에 따라 발음이 확실하지 않거나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속기사는 그러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그 분명하지 않은 발음을 살려내어 정상적인 문자언어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잘못된 어휘는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속기사의 책임이자 의무다. → 66개소가 전산화 등기소로 전환되었고, -(중략)- 모든 등기소의 전산화 사업이 -(후략)-

⑥여론의 마녀사냥식의 흐름들을 뚫어 내는, 살아 있는 지성이 오로지 법원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번문상의 오류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리 만무하다. ‘기대하다’는 타동사이다. 마땅히 목적격 조사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성이’는 ‘지성을’로 바로잡아야 한다. 언뜻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문법적 요소를 짚어 가다 보면 이렇듯 허다한 오류들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숫자는 무조건 재확인하라

①1,472건을(→총 472건을) 적발·단속하였고

②예를 들어 라뭉 226g(→라뭉226 1g)을 1초 동안에 쏘이는 것을 1큐리라고 하면

각각 ‘1’이라는 숫자 하나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 예문 ①은 오청인 것 같고, ②는 ‘1g’을 언뜻 발언상의 오류로 잘못 판단하여 ‘1’자를 의도적으로 빼 버린 듯. 속기사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③86년부터 92년까지의 물가상승률 5.2%를(→51.2%를) 고려한다면

86년부터 92년까지 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5.2%라면 이걸 우리가 파
라다이스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발음이 불분명했다, 아니면 오
타로 인한 오류일 것이다. 검토 시 내용을 좀더 음미했다라면 피할 수 있었
던 오류다.

④O-157에 이어 O-262가(→O-26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⑤홍보는 생색에 그치고 이외의(→2회의) 허가를 내 주었다는 의문도 제
기되고 있습니다.

⑥인공어초를 금년에 7만 9,000ha(→1만 9,000ha)를 시행합니다.

‘1’만 아니라 ‘2’도 참 골치 아픈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 ‘2’와 조사 ‘이’를
헛갈릴 수는 있겠으나 굳이 ‘가’라는 조사까지 동원해서 오류를 남겨야
했을까. 발언과정의 오류보다는 청취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했어야 했다. ‘이외의’는 내용 파악에는 신경을 안 쓴 데서 초래
된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1만’이 ‘7만’으로, 단순히 숫자 하나가 틀렸
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오청이다. 하여간 수사만 나오면 신경
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6) 잘못된 발음이나 음운현상에 유의하라

속기를 하다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때가 많다. ‘吟味’를 ‘금미’라고 한
다든가, ‘嗜好食品’을 ‘노호식품’이라고 하는 등 한자를 엉뚱하게 읽을 때
가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罹災民’을 ‘나재민’이라고 하여 신문 가십난
을 장식한 이도 있다. 한데, 이런 경우는 원고를 잘못 낭독한 것이니 애
교로도 보아 줄 수 있지만 원고 없이 발언하면서도 한자 어휘를 엉뚱하게
발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속기사의 어휘력을 테스트하려는 것도 아
니고 순전히 발언자의 잘못된 국어 실력 탓이다. 그러나 속기사의 어휘력
은 이런 경우에 더욱 빛을 발해야 하는 법!

①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인지

‘투기’가 아니라 ‘收賄’였다. ‘收賄’를 ‘수유’라고 발언했다. 소위 바담뽕식
발언이다. 한데, 속기사는 ‘收賄’라는 단어를 몰랐던 듯. ‘수유’라는 단어
가 국어사전에도 없고, 고민하다가 ‘투기’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收賄의
정확한 음은 ‘수회’.

②수차의 추고를 통해서 정리된 문안입니다.

위 예문의 오류를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속기 당사자는 고민

이었다. 발언자의 학식으로 보아 이런 정도의 한자어를 틀릴 리가 없다는 것. 무언가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식이 곧 국어 실력일 수는 없는 법이다. 편집자의 재량으로 ‘퇴고’로 바로잡아 주었다. 무식한 발언을 유식한 발언으로 바꾸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그대로 두면 독자들의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또 이런 발언상의 오류는 비단 한자를 잘못 발언하는 데서만 발생하지도 않는다. 부동산투기 조절방안(∼ 근절방안), 대를 여성의 취업문제(대졸 여성의 ∼)처럼 급히 작성해 준 질의자료의 필체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속기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해는 안 되고, 오류 위에 오류를 더하여 중첩된 오류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④작년 현재 전국적으로 항구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체선 체하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손실이 약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체선’은 ‘滯船’이겠고, 그러면 ‘체하’는? 사투리 발음 또한 제대로 인지를 못 하면 속기록에 커다란 오류를 남기게 된다. 특히 위 예문처럼 복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간통도로’는 이내 ‘관통도로’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만 발언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다. ‘체하’가 아니라 ‘체화(滯貨)’다.

⑤적어도 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권리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⑥인권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보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과잉법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ㅣ’ 모음은 흔히 앞말이나 뒷말에 함몰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착한 어린입니다.’에서처럼 ‘ㅣ’ 모음 하나가 줄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축약 현상이다. 그런 어휘나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것이다 보면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들리는 대로’ 기록하기 십상이다. 위 예문들이 그런 예이다. 정입니다. → 정의입니다. 과잉법 → 과잉입법

⑦KDI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ㅣ’ 모음의 축약 현상은 비단 우리말에서만뿐만이 아니다. 위 예문에서는 알파벳 이니셜을 오칭한 경우이다. KEDI(한국교육개발원)를 KDI(한국개발연구원)로. 무심코 듣고 그대로 기록하였다. 독자들 또한 대부분이 그렇

게 읽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겠지만 관련 전문가들로서는 속 기록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될 것이다. 적어도 담당 상위의 산하기관 정도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⑧뉴욕은 범죄의 소굴, 해만 떨어지면 나다닐 수 없는 도시로 악명이 높은 도시인데 줄리안이라는 검사장 출신의 시장이 된 후 밤 12시에도 나다닐 수 있게 대단히 치안이 안정된 도시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외래어와 우리말이 어울려서 음운현상을 일으키면 때에 따라서는 어디까지가 외래어고 어디부터가 우리말인지 헷갈릴 때가 더러 있다. ‘줄리아니 + 라는’을 ‘줄리안+ 이라는’으로 새겨들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고유명사 같은, 자신이 모르는 외래어라면 한 번쯤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확인해 볼 일이다. 조그마한 방심이 세계적인 대도시의 시장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 또 하나 외래어 표기법상 ‘ㄷ’이나 ‘ㅈ’ 같은 구개자음 뒤에서는 북모음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할 일이다. 또 음운현상과는 관계없지만 ‘밤 12시에도’는 ‘밤 12시 이후에도’가 아닐까 싶은데, 자신은 없다.

⑨한국 주택은행의 주식 소유지분 65%가 미국의 뉴욕은행 등 외국인에게 넘어가 주택은행의 국정마저 미국으로 넘어간 현실에 아연했습니다.

⑩아이들이 취학 정년기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말 음운현상 중에는 자음동화작용이라는 것이 있다. 윗말의 종성과 아랫말 초성의 음이 서로 만나서 동화함으로써 그 음가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들리는 대로’의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자들이 ‘국정마저’에 머리를 가웃거리다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어 할까. ‘정년기’는 ‘定年期’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국어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다. ‘적령기’이다. 음운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휘력이 좀 달렸던 것 같다.

⑪국회의 관광명소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광명소와는 동감입니다? 무언가 어색하다. ‘관광명소화 案’을 오칭한 것이다. 그런데 ‘관광명소화’의 ‘화’를 ‘와’로 오칭하면서부터 연속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화+안은 → 와+안은 → 와+아는 → 와아는 → 와:는 → 와는. 이런 것 역시 음운현상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부자연스러움을 감지하지 못하는 언어감각 탓이라 하겠다.

7) 오역 여부를 점검하라

①북한을 몰지만 삼자 하는 것입니다.(→몰지만 말자)

②자료로 다 되어 있겠지만(→다 나와)

③국제금융시장은 각국 金融市場의 개방화 및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경제상품의 개발(→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금융상품의 개발) 또 시장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④잡종지를 이미 매각하고도 보유현황에는 게재되어 있는 상태로, 그런 것이 철도청과 (→보유현황에는 게재되어 있는 상태로 관할 철도청과) 재정경제원하고 건설교통부에 보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⑤왜 육지의 鄭周永은 (→경지정리는) 농민 부담 없이 정부가 다 해 주면서 바다에 있는 양식장 정화사업은 어민들한테 부담을 떠넘기고

속기문자의 약점은 번문이 제대로 안 됐어도 말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다.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용으로 녹음기를 사용한다. 아무리 속기실력에 자신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재차, 3차 확인이 필요하다. 도대체 속기문자가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경지정리’가 ‘鄭周永’으로 바뀌었을까. 나름대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제출한 원고에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오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하라. 원고를 빨리 제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⑥기름 넣는 기계는 없는데 주유소 간판 만들고 오는 손님한테 절만 잘 하라는 얘기입니까?

⑦뇌물수수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한 송례가 있습니다.

⑧은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얼른 감이 잡히지를 않는다. 간판을 누가 만들어 오나? 손님인가, 주유소 측인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번문했지만 발언 내용을 본인도 이해를 못 했고, 읽는 사람도 못 하게 만들어 놓았다. 속기문자에 집착하다 보니 막상 그 내용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문장부호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내용에 맞게 다시 정리해 보자.

→ 기름 넣는 기계는 없는데 주유소 간판만 들고, 오는 손님한테 절만 잘 하라는 얘기입니까?

⑦번 예문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어휘력(상식) 부족으로 인한 오역이라는 차이가 있다. 파기한 송례? →파기환송례.

8) 외래어의 쓰임새에 유의하자

①이 작품의 캐스트는 꼭 이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하고 연출가가 요청하거나

②원자로 건설을 위해서 40억 불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거지요.

③枕向의 경우는 제조 과정에서 분명히 누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누수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①은 “지금 현재 객원출연의 출연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객원’의 의미를 새기면서 번문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캐스트’가 아니라 ‘게스트(guest)’다. ‘써야 된다’는 ‘셰어(share)해야 된다’, ‘누수’는 ‘로스(loss)’다. 특히 ‘누수’는 발언자의 발음이 ‘루스’였다. 그 ‘루스’가 ‘loose’는 아닐 것이고 아마 ‘lose’인 것 같은데, 이는 잘못 사용된 것이다. 그 이유는 ‘lose’는 동사요, 동사 뒤에는 ‘가’라는 조사가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속기사는 이를 눈치채기는커녕 ‘누수’로 청취했으니 이중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점점 외래어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속기 업무상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시장셰어(share)’를 ‘市場需要’로, ‘UR협상’을 ‘6월협상’으로 기록한 것을 보고 아연했던 적도 있다.

④TIMS는 현재 홍보도 잘 안 되고 스위스제 잭에 무엇을 꼽는지,(→스위치에, 잭에 무엇을 꼽는지,) 새로 이사온 사람이 알지도 못해요.

발언자가 약간 더듬거렸다. ‘스위치에’라고 발언했다가 ‘잭에’라고 고쳐 발언한 것이다.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스위스제 잭에’로 청취하고 그렇게 기록했다. 당연히 ‘스위치에’라는 어휘는 버리고 ‘잭에 무엇을 꼽는지’라고 기록했어야 했다. ‘꽂다’를 ‘꼽다’로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말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⑤이것은 金泳三 정부가 추진하던 개혁의 커버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개혁의 커버? 커버(cover)가 아니라 커브(curve)였다. 개혁의 곡선이 같다는 얘기다. 외래어 또한 문맥상 그 적합성 여부를 꼼꼼 음미하면서 기

록해야겠다. 비슷한 발음으로 적당히 기록해 놓으면 이렇듯 엉뚱한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9) 자료 확인은 필수!

①韓電의 정보통신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電氣通信基本法 제21조 목적의 사용량과(→目的외의 사용의 제한과)……

②내년도 연구과제를 보니까 15건 중에 세제개편은 12건이고(→25건 중에 세제에 관한 것은 12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기타입니다. 3건이(→13건이) 다른 것입니다.

③報告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水産系 高校 自然科(→自營科) 학생들에게 4개교 480명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①은 법조문을 인용한 발언이요, ②, ③은 현황보고 자료를 인용한 발언이다. 법전을 뒤져보고, 자료를 훑어만 봐어도 될 것을, 이건 완전히 성의 부족이다. ‘들리는 대로’의 속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는 예문이다. ‘자영과’는 ‘자영수산과’를 발언자 나름대로 줄여서 말한 것.

④구운몽은 부패했고, 김씨啓女史 등은(→金氏戒女詞 등은) 좀벌레로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⑤보통 이 어선들이 어디서 조업하다가 흑산도 또는 제주도로 오느냐 하면 이 부근과 소코트라 부근에서(→이 일향초 부근과 스코트라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바람만 불면 이쪽으로 집결이 됩니다.

⑥임의무효의(→‘이미 무효’의) 뜻이 한말 3조약이 그 당시 무효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유효했고 자기들이 망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기본조약 만들 때는 임의무효(→‘이미 무효’)라는 것입니다.

④는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해결될 것을, 우리 문학사에 ‘김씨啓女史’라는 고전을 하나 더해 놓으라고 고민케나 했겠다. ⑤는 해당부처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향초 부근’이란 말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부근’으로 얼버무렸다. ‘일향초’는 흑산도 근처의 바위섬(암초)이고, ‘스코트라’는 일명 ‘이어도’로 알려진 암초를 일컫는다고 한다. 그런데 흑시나 하고 백과사전에서 ‘소코트라’를 찾아보니 인도양에 위치한 섬이라는 설명. 인도양에서 바람을 만난 배가 대서양을 지나 제주도까지 피난을? ⑥은 그해 8월치 신문에 보도된 문제였다. 신문 좀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될 것을 희한한 법률용어 하나를 새로이 만들어 놓은 꼴이 되

었다.

④회랍의 가장 큰 무슨 항공사는 비행기가 30대에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큰 무슨 항공사? ‘가장 큰 항공사인 올림픽 에어웨이즈’다. ‘올림픽 에어웨이즈(Olimpic Air Ways)’를 정확히 칭취하지 못하고 ‘가장 큰 무슨 항공사’라고 얼버무렸다. 그리스 대사관에 전화 한 통이면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을. 속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빨리빨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확성을 챙기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함을 잊지 말라.

10) 기호문자를 바르게 챙기자

①영광 3호기에서 체르노빌 수준의 중대사고가 난다면 반경 25Km 이내의 15만 주민의 일부가 죽고 194Km 이내의 주민은 급성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며

‘Km’로 기록한다 하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속기사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그것도 같은 책에서 KM, Km, km 등 통일되지 않은 구구각색의 기호문자는 속기록의 품위를 훼손하는 요인들이다. 길이나 넓이, 부피, 무게 등을 나타내는 각종의 기호문자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다. 이런 것은 우리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익혀서 따라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 속기록을 보노라면 구구각색의 희한한 기호문자들이 뒤범벅이 되어 나타난다. Km / km, KW / kw / kW, Kg/kg, 톤/t, kl/kl?? 단위를 나타내는 각종의 기호문자는 대부분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오랜만에 쓰다가 헛갈릴 때는 무조건 국어사전을 찾아볼 일이다. 생각나는 대로 쓰지 말고.

②그런데 M2 기준으로 화폐증가율은 15.1%입니다.

③기초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범위 내에서

한 나라의 통화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화공급 통계에서 통화(현금통화+ 요구불예금)는 M_1 , 총통화(M_1 + 저축성예금)는 M_2 , 총유동성 통화(M_2 +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수금)은 M_3 로 표기한다. 무조건 말하는 대로 ‘M2’로 기록했으니 식자들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어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한계를 뜻하는 ‘±2%’로 기록해야 한다.

④기상청의 예보는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집중호우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기상예보는 주의보 수준에 머물렀고 300ml가 넘는 실제 강수량에 비해 예상강우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50ml에 불과하였습니다.

강우량을 부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가. 일기예보를 통해 매일같이 접하는 강우량의 단위를 설마 모르지는 않았을 터. 원고를 검토하다 보면 이렇듯 엉뚱한 오류들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그저 쫓기듯이 ‘들리는 대로’만 기록하다 보니 빚어지는 실수들이다.

11) 고도의 전문용어, 끝까지 확인하라!

①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제품을(→시편을) 채취해 가지고 ‘試片’은 시험 분석에 쓰기 위하여 골라 낸 광석이나 광물의 조각을 말한다. 자기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누구나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확인할 길은 막막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용어로 적당히 바꿔치기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전문용어들은 관계 전문서적이나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시편’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전문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②그러한 한도를(→그러나 선량한도를)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ICRP에서(→ICRP 60에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ICRP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약칭이다. ‘ICRP 60’은 동 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이며, 아라비아 숫자 ‘60’은 그 보고서의 발행 순서에 따라 매기는 연번호이다. ‘線量限度’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구령이 담 넘어가듯 ‘그러한 한도’로 처리했는데, ‘선량’이란 용어도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③성장단계에 있는 12년생 마구 잡고 채취함으로 해서 무언가 좀 이상하다. 무언가 빠뜨렸다는 혐의가 짙다. 녹음 테이프를 구해 확인해 보았다.

→ ③성장단계에 있는 12년생 稚貝를 마구 잡고 채취함으로 해서 ‘치패’라는 말이 낫설었던 듯. 고민 고민하다가 슬쩍 넘어간 것 같은데 요령부득이었던듯. 눈치도 없이 말도 안 되게 빼먹었다. 목적어를 빼먹었으니. 그런데도 이상하다. 조개의 수명이 얼마나 되기에 ‘12년생’이 치패 취급을 받을까. ‘1~2년생’을 잘못 낭독한 것이 아닌가도 싶지만, 글썩,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의문을 갖고 확인했어야 했다.

④산뜻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집배용품을 연차적 전면 교체를 해서 더 없이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시 보완한 것은 아래와 같다.

→ ④산뜻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순로구분선반 등 집배용품을 연차적 전면 교체를 해서

우리나라는 주택가의 번지수가 들쭉날쭉이어서 우편물을 번지수별로 구분하지를 못한다. 대신 집배원의 보행로를 따라(順路) 구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구분 작업을 할 때 우편물을 올려놓는 선반을 순로구분선반이라 한다. 끝까지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 태도는 지양되어야겠다.

⑤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는 이때일수록 저쪽은 내부 결속시키는 방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런 것을 당국자들은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초기의 어떤 편견의 비난에서 보시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고상에는 ‘편견의 비탈에서’라고 쓴 것을 ‘비탈’을 지우고 그 위에 ‘비난’이라고 고쳐 놓았다. ‘편견의 비탈’이나 ‘편견의 비난’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직접 확인해 보니 ‘편견의 빛 아래서’였다. 이건 전문용어가 아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소 현학적인 데다 내용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다. 독서 수준이 이 정도의 수사적 표현을 이해하기에는 버거웠던 것 같다. ‘빛 아래서’를 ‘비탈에서’로 청취하고, ‘비탈’이란 말은 사전에도 없었으니까 ‘비난’으로 기록한 것이다. 평소 꾸준한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언의 수준이 약간만 높아져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12) 횡설수설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발언자 중에는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내용을 얼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이들이 있다. 때로는 용어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아는 체하느라고 횡설수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취능력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의 예리한 판단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①재무부가 금융감독을 해야지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 예문만 보고서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속기록 상에는 이 내용을 이해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녹음 대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당한 양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

→ 재무부가 금융감독을 해야 할 처지에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제기하고, 또 **李** 사장이 조금 있다가 **金** 사장, **金** 사장이 또 조금 있다 가고, 이런 실물경제에 따라서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으로 나가는데, 나는 두 팀, 세 팀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소 발언자는 두서없는 횡설수설로 말한 대로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런 발언에다가 ‘팀’이라는 영어까지 동원하여 유식을 자랑하고 있는데, 속기사는 ‘팀’을 어느 지방 사투리쯤으로 생각했지 ‘term’인 줄은 미처 몰랐던 것 같다. 고민, 고민 끝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전후 내용을 확 빼 버린 듯.

그러나 필자가 말한 그대로 문자화해 놓은 것도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 파악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저것 뒤범벅이 된 내용에다 그저 횡설수설이다. 수문을 가하기도 어렵게 내용이 복잡적이다. 이런 횡설수설은 억지로 수문을 가하려 하기보다는 횡설수설 그대로 기록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단,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동료들과 ‘공청회’라도 가질 일이다. 자기가 모른다고 확 빼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한 업무 자세이다.

②질의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열간이 이럴 때는 열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열이고 좀 높은 자라고?

답변 : 긴 소리라는 뜻입니다.

질의 :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방법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 일입니다마는 국어교육에서 長短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질의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횡설수설이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열간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보아도 무슨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확인한 결과,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열 :’은 높은 자고 낮은 자

는 ‘얼간이’, 이럴 때는 얼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얼이고 좀 높은 자라고… (필자 주; 뒷부분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듯.)

얼른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어지는 답변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긴 소리, 長短, 이 두 단어에 비추어 볼 때 질의자는 장?단음을 고?저음과 헷갈린 상태에서 질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 헷갈린 것을 답변자는 “긴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면서 시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언 일구 발음에만 집착하다 보니 “‘얼:’은 높은 자고”를 “어른 높은 자고”로 청취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또 수문이라는 걸 했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라고. 바담뽕 발언에 빠담뽕 수문이다. 여기에 제대로 수문을 가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얼:’은 장음이고 ‘얼간이’의 ‘얼’은 단음인데, 이렇게 ‘얼간이’에는 ‘얼’에 아무 표시가 없지만 ‘얼:’에는 ‘우리나라의 얼’이라고 할 때처럼 길게 발음하도록 장음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문을 해 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동감이다. 무식한 발언을 유식한 발언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식한 발언을 음성만 기록해 놓으면 독자가 헷갈리게 된다. 거기에 속기사의 이해 부족으로 수문이 잘못 가해지면 위 예문처럼 도무지 뜻 모를 횡설수설이 되는 것이다.

위 예문은 질의 내용은 필자가 확인하여 기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그래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이들을 위하여 답변 내용에 조금 수문을 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국어교육에서 장?단음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을 “장?단음”으로만 바꾸어 주어도 질의?답변 내용이 보다 확연해지게 되었다. 또 독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하고 있는 상황을 그런대로 눈치챌 수 있을 것이고.

13) 기타—지문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속기록에는 발언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의 분위기나 때로는 발언자의 제스처 따위를 괄호 속에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회곡에서 무대의 분위기나 배우들의 행동을 지문으로 표기하는 기법과 같다 하겠다. 그

런데 현행 속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어색하고 적합지 않게 생각되는 지문들이 몇 가지 있다.

①(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우선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편람에 보면, (국기에대한경례), (일부의원퇴장), (웃음소리) 등 대부분의 지문에 제대로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같이 띄어쓰기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암만 들여다보아도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면 일일이 암기를 하든지 매번 편람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얘기가. 맞춤법의 원칙대로 따른다면 그런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위 지문에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마이크중단’이란 표현이다. ‘마이크’는 명사다. 명사 중에도 책상, 결상, 볼펜 같은 물질명사에 속한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명사와 ‘중단’이란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상 중단’, ‘볼펜 중단’…… 초등학교도 웃을 것이다. 마이크가 외래어이다 보니 그러한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마이크 꺼짐’ 아니면 ‘마이크 작동 중단’ 같은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②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앉아 주세요.

기립표결을 할 때는 ‘(기립표결)’을 꼭 두 번씩 표기하고 있다. 언뜻 봤을 때는 기립표결이 2회에 걸쳐 행해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에 찬성하는 위원과 반대하는 위원이 각각 한 번씩 기립한 것이다. 이 또한 다른 표기법을 생각해 보자.

‘(찬성하는 위원 기립, 계수)’, ‘(반대하는 위원 기립, 계수)’ 등으로 표기하면 어떨까.

③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이며)

여기 도표의 항생제 판매액 추이를 보면, -중략- 4.5배가량 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일동 박수), (일부 의원 퇴장)처럼 회의장 상황을 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석을 향하여)처럼 개인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문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줄을 바꾼다. 그러나 일반 글쓰기(회곡)에서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지문은 줄을 바꾸어 표기하지만 개인의 행동이나 제스처는 대사 앞이나 뒤에 이어서 그대로 표기한다. 속기록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사용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이며) 여기 도표의 항생제 판매액 추이를 보면 -중략- 4.5배가량 늘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지문을 도입한 것은 음성언어의 문자화만으로는 그 분위기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수문의 한 방법으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개회식이나 투표 등 의식(儀式)을 행하는 경우가 아닌, 회의장의 상황이나 발언자의 제스처 따위를 표기하는 방법은 굳이 편람의 규정에 의해 그 표현 방법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속기사의 판단에 의해 그 상황에 맞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장내 폭소), (야당의석에서 「아이구, 훌쩍 하셔라」 하는 의원 있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단호한 어조로), (손을 내저으며) 등으로 말이다.

④답변 : 파리협약에 보면, 우선권 주장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허나 실용의 경우에는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어느 나라고 심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룰입니다.

질의 : 국제 룰을 고치면 되지 않아요?

답변 :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 예문에서 질의자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제 룰을 우리 마음대로 고치자고 하니 말이다. 이를 지문을 활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되살려 보았다.

→질의 : 국제 룰을 고치면 되지 않아요? (웃음)

답변 : (웃으면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문을 살려 놓으니 질의자는 답변 중에 불쑥 농담을 던진 것이고, 답변자는 농담을 알아차리고 이를 웃음으로 받아넘기고 있음을 대번에 알 수 있게 되었다. 속기록을 읽는 사람 입가에도 미소가 떠오를 것이고.

이 예문은 필자가 직접 기록했던 것으로 편람에는 ‘(웃음소리)’라는 규정 밖에 없다 하여 당시에는 이러한 지문의 활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게 답답한 속기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모르겠다. 상황 묘사를 편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맺는 말 - 자신을 지식으로 무장하라!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이것은 속기사의 신조 제1항의 선언이다. 속기록은 ‘말하는 대로’ 기록해도 안 되지만 ‘들리는 대로’는 더욱 안 된다. ‘들은 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들은 대로 기록한다’는 선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즉 청취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속기사가 전문직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청취능력이 남달리 우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심지어 속기사들까지도) 청취능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한다. 청력(聽力)이 곧 청취능력인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력(學力)밖에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성인(成人)이라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듣지 못한다. 굳이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겠다고 말릴 수는 없겠으나 강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내용을 정확히 필기해 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런가? 어휘력이나 이해력의 부족으로 청취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속기사의 청취능력이란 바로 풍부한 어휘력과 그러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문 직업 속기사는 곧 고도의 지식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성언어는 발언과정에서, 전달과정에서, 또는 청취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속기사의 청취능력은 그러한 오류까지도 인지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발언자는 ‘바담뽕’ 하더라도 속기사는 이를 ‘바람뽕’으로 새겨듣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챘을 것이다. 속기록상의 오류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바람뽕’을 ‘바담뽕’으로 청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여 년 전,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대회에 다녀왔던 김주성 씨

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다. 돌아오는 길에 영국의회에 들러 IPU 서울총회 때 알게 된 속기사를 찾았다고 한다. 그 집에 초대받아 갔던바, 서가에 책들이 산더미같이 꽂혀 있더라는 것. 어찌나 책이 많던지 필요한 책을 찾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본래 의회 출입기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입기자보다는 수입도 더 낮고 자기의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의회 내에 설치된 속기사양성소를 졸업하고 의회속기사가 되었다는 것. 의회속기사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라 하겠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들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방대해져만 가고 있다. 기능만 가지고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지 오래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없으면 속기업무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속기사는 지식인이어야 한다. 그것은 속기록의 정확성을 쟁길 수 있는 제1의(義)의 조건이다. 진정 전문 직업속기사임을 자임하려거든 먼저 자신을 지식으로 무장하라!

속기사가 전문직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수문능력이 남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제대로 하려면 청취능력은 물론이거니와 문법에 정통해야 한다. 즉 우리말의 어문체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통시적?공시적 변화를 거듭하는 언어의 특성상 속기록은 이 시대의 문법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후대의 역사연구를 돕기 위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맞춤법이나 문장부호가 무어 그리 중요하다는 거냐고 반문할 때는 솔직히 말문이 막힌다. 10년, 20년 속기실무를 하면서도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점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말하는 대로’나 ‘들리는 대로’의 기능적 작업으로 만족해 온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반문이다.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내기 위해 어떠한 고민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속기록을 흔히 현대판 사초라고 한다. 사초는 역사기록의 초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초가 오류 발생으로 인해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속기록은 바로 이 시대 우리 속기사의 얼굴이다. 우리들의 지식 수준과 업무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속기록을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엄중하다고 하는데.

속기사가 사회 일반에서 기능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언어속도를 따라

잡는 ‘스피드’(운필능력)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속기사가 전문직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청취능력과 수문능력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또 속기사의 양성 과정이나 자격시험, 채용 과정에서 그러한 능력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 출입기자를 그만두고 의회 속기사의 길을 택할 정도로 이 땅에서 속기사가 대우받는 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낱 백일몽일는지 모르겠다. 그때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자기 자신의 지위상승을 위해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리라. 하긴 지난 50년의 속기사(速記史)가 바로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속기계의 변화는 있었지만 속기문화 자체는 발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거한다. 발전은커녕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우리가 악조건을 무릅쓰고라도 속기문화 발전에 일생을 걸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속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우리는 속기록의 정확성에 일생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청취능력과 수문능력의 향상에 힘쓰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속기학?술의 토대를 다져 나가야 한다. 또한 보람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행의 잘못된 속기제도의 틀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이 밀거름이 되지 않고는 이 나라 속기문화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진정, 속기업무의 중요성과 어려움(難度)에 상응하는 속기사의 위상을 원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직시하라. 과연 속기업무를 감당할 만한 적재(適材)인가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이 먼저 전문직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 전에는 전문직으로서의 위상과 처우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keeper@assembly.go.kr>

(국회사무처 속기1과2담당)

제43차 인터스테노총회 참석보고

김란희(협회 홍보이사)

1. 기간 ; 2001년 7.28(토) ~ 8.3(금)
2. 장소 ; 독일 Hanover의 Congress Centrum
3. 참가목적
 - 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속기환경과 속기인의 역할 및 위상과약
 - ② 독일연방의회의 속기현황과약
 - ③ 불모지인 중국 속기계와의 활발한 교류목적과 인터스테노 아시아회의의 준비를 위한 협의
4. 한국측대표
 - 홍순관(협회 이사, 속기1과장)
 - 김란희(협회 홍보이사, 속기1과4담당)
 - 한기수(협회 전 총무부장)
 - 이기옥(경상남도의회 속기사)
5. 참가국 및 참가인원 : 30여개국의 570여명 참석
6. 주요결정사항
 - IPRS(의회속기사부)회의; 미정
 - 차기 중앙위원회 개최국 및 시기; 미정
 - 제44차 총회 개최국 및 시기;
2003년 North-Italy와 2005년 Austria Wien에서 개최될 예정임.
 - 차기 의장; 이태리 Dr. Fausto Ramondelli 선출
현 의장인 Gregor Keller 명예의장으로 추대됨.

- 차기 사무총장; Mr.Danny Devriendt 선출 (Dr.Karl Gutzler 사무총장의 사망으로 공석이었음)

7. 주요일정

1) 7월28일(토)

- 10:30 1차 중앙위원회 개최
- 16:00 총회 개최식 거행
- 18:30 타이프 및 PC 경기대회 참가자 안내

2) 7월29일(일)

- 시내관광 및 속기경기대회 참가자 안내

3) 7월30일(월)

- 09:00 속기경기대회(A,B그룹)
- 14:00 다국어 속기경기대회
- 15:00 IPRS(의회속기사부)개회

4) 7월31일(화)

- 09:00 다국어 속기경기대회 계속(비전문가 집단) 및 문서교환과 작성경시대회
(우리 측의 대회참관 요청에 조직위원장인 Gabrielle Fasnacht 조직위원장의 배려로 참관)
- 13:30 1차총회
‘The moving of the German Parliament and its Services to the New Berlin’ ‘The Future of Parliamentary Stenography’라는 주제로 독일연방의회 속기사무 국장 발표
‘The Future of our Profession es at Risk’ 즉 기계의 발달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내용의 이태리 측 발표
- 16:00 2차 중앙위원회 개최 (차기 의장으로 Dr. Fausto Ramondelli 선출)

5) 8월1일(수)

09:00 2차총회

‘세계화와 멀티미디어 대중매체’ 등 주제발표

음성인식프로그램과 언어번역프로그램 시연회

14:00 패널리스트 8인과 함께 질의 답변

15:30 ‘프리젠테이션 Today’ ‘spracherkennung am computer’ 등의
주제발표.

6) 8월2일(목)

09:00 3차총회

일본 측의 속기문자 소개와 일본 속기의 현주소에 대한 발표

이태리, 스페인의 속기를 활용한 강의

타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교수법

14:00 인터스테노 전체회의

16:00 경기대회시상 및 폐막식

7) 8월3일(금)

시내관광 등 비공식일정 진행

8. 성과

- ① 사무자동화 부문의 최신정보와 속기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제고
- ② 지속적인 총회참가로 한국의 확고한 위치를 확인
- ③ 세계화에 발맞춘 기회확대의 장

9. 기타사항

- ① 인터스테노 총회, 중앙회 등의 유럽 개최에 대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아시아권에서의 개최방안 연구필요
- ② 주제발표 등 우리 측 참여방안의 강구 요망
- ③ 경기대회 참가 등은 요원한 과제로 보이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우리에게 맞는 대회 개최방안 모색필요
- ④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국비보조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함께 자비부담의 참여도 요망됨

☆ 별첨 ☆

<각종 경기대회 결과>

1. 속기경기와 저자의 교정 (주니어부)
페터 두치악(Peter Dudziak) 우승
2. 원문작업 전문가과정
쉬테파니 뵐레(Stefanie Wiele) 우승
3. 세계속기경기대회
안젤리카 갈론스카(Angelika Galonska) 준우승
4. 다중외국어 부문(5개국어 번문)
베르나르드 그렘머(Bernhard Gremmer) 우승
5. 교환문서 및 외교문서 작성대회
피터 번(Peter Bruhn) 우승
6. 기계속기와 속기의 콤비평가전

한·일 의회 속기인들과 우호를 다지다

김란희(협회 홍보이사)

7월31일 총회 첫날, 긴장감속에서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금 지친 상태로 총회장을 나오는데 츠시마 양이 일본 측 참석자인 衆議院事務局의 속기감독인 長田政之(나가타 마사유키) 씨와 參事인 猿谷豊(사루야 유타카) 씨, 參議院記録部 속기부감독 横井加津子(요코이 카츠키) 씨를 소개하며 우리 일행과의 미팅을 제의하였다.

조금 어색한 감이 있었으나 먼저 청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약속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 그들의 숙소와 가까운 호텔 근처 Kropcke 시계탑에서 저녁 7시에 만나 맥주 한 잔의 추억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 일행은 통역을 통해 지리를 익힌 후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익숙치 않은 곳인 관계로 거리예측을 잘못하여 약속시간을 많이 넘겼으나 그들은 별 상관하지 않는 듯 즐거이 담소를 나누며 노천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 여유 있는 모습에 금방 편안해졌다.

곧 장소를 옮겨 그들이 그 전날 봐 두었다던 맥주집으로 향했다. 처음엔 이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분위기에 고조되면서 처음 만난 것같지 않은 친숙함도 느꼈다. 아마 맥주 탓도 있었으리라. 다른 곳을 가보지 못해 확실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독일풍 느낌이 들었다. 물론 안주로는 소시지 류를 주문했다.

궁금했던 이 모임의 주선목적은 츠시마 양이 속기계 편집장을 맡게 되어 속기계에 실을 내용을 인터뷰하기 위한 자리마련이었다. 어쨌든 한일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됨에 감사했으며 처음에 조금 염려했던 의사소통 문제는 이기옥 회원의 전문통역 뺏치는 실력으로 한층 화기에애했다. 덕분에 나와 한기수 회원은 그저 미소와 바디랭귀지, 단답형의 대화만으로 충분했으며 홍 과장님께서도 그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시느라 맥주 마실 짬이 없으셨다.

츠시마 양은 우리와 지난 총회 때부터 맺은 인연을 계기로 개인적으로도 한국방문의 기회를 가져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인터뷰할 내용들을 한국어로 기록해 왔다. 그런 츠시마 양의 열정이 고맙게 느껴졌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 그 사이사이 우리 일행도 궁금하였던 점을 묻는 중 시간은 많이 가고 있었다. 문득 춥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유럽의 여름날씨라는 게 우리의 여름처럼 습도가 높은 아열대현상이 아니라 건조하여 낮에도 무덥지 않으며 특히 해가 떨어지면 완전 초가을 날씨로 돌변해 항상 여분의 옷을 준비해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우리 팀은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한기수 회원은 그 전날 무사히 도착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음날 일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기분을 내는 바람에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우리 일행의 안타까움을 샀으나 다행히 별 탈 없이 거뜬히 넘겨 안심이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사실 일본 측의 제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경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 고민을 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자면 그들이 먼저 초청했으니까 경비를 낼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까짓 것 우리가 낼까 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왜냐, 그들은 당연하게 칼같이 경비를 반으로 나누는 것

이었다. 뭐랄까, 신세 안 지고 내 것은 내가 내고 네 것은 내가 내니까
깨끗하긴 한데 기브 앤 테이크의 정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뭘 모
르는 걸까.

일본 측 일행 중 나가타 마사유키 씨는 이기옥 회원의 능숙한 통역으로
대화가 잘 되자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우리 일행을 즐겁게 해 주었
다. 유부남이면서 말이다.

이젠 마무리 시간, 과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속기계가 발간되는 대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다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늦은 밤 발걸음을 돌렸다.

※참고로 이들도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 의회에는 아직 기계속기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총회참
가 목적에는 기계속기에 대한 조사목적도 있다고 했다. 몇몇 민간학원이
있으나 거기에서 연마한 기술로는 취업의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설명이 있
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속기사의 인기 정도는 그들이 마지막 의회속기사가 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이라는 매력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지 결코 속기에 대한 애정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 속기업무 환경도 발언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빠른 질문과 빠른 답변으
로 속기하는 데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同病相憐의 정이 느껴
졌다.

※중의원 홈페이지 주소; //shugi in.go.jp

참의원 " ; //sangiin.go.jp

인터스테노 아시아 회의를 위한 준비모임

1. 일시 및 장소; 7월31일(화) 10:00 Congress Centrum 휴게실

2. 참가국; 5개국(한·중·일·이태리·카자흐스탄)

3. 참가인원;

- 한국; 홍순관 과장, 김란희 계장, 한기수 회원, 이기옥 회원(4인)
- 일본; 兼子次生(가네꼬 츠구오), · 合秀一(츠지아이 히데카즈), 横井加津子(요코이 가즈 코), 津島靖子(츠시마 야스코) 荒木章(아라키 아키라)(5인)
- 중국; 韓珠璇 북경시속기협회 이사장, 王·북경시속기협회 부비서장(2인)
- 이태리; Paolo Trovulzio(인터컨추럴 파트 책임자), Dr.Fausto Ramondelli(차기 회장)(2인)
- 카자흐스탄; Omirov(1인)
- 기타참석자; Gregor Keller 의장

4. 경위

그동안 중국 속기계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회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컸었음. 이에 따라 이번 총회참가를 계기로 일본 측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권유를 시도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터스테노에서 아시아권 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임.

5. 목적

유럽권을 중심으로 한 인터스테노 활동이 자칫 아시아권 국가들의 참여율 저조 등 무 관심으로 표출될 것이 우려되며 그러한 소외감 불식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정보공 유로 인터스테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시아권과의 활발한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 함임.

6. 협의내용요약

○Gregor Keller; 이렇게 아시아인 모두가 모여 감사합니다.

○Trivulzlo Gioupaolo; 일본의 가네꼬 씨와 인터넷 상으로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이번 기 회에 다같이 모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타진이 있었 습니다.

인터스테노 모임은 유럽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아시아에까지도 더 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regor Keller**; 독일에서는 적은 인원만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필을 사용하는 데 이렇게 지금은 손으로 작성하지만 앞으로는 손을 사용하여 쓰지 않고 바로 음성인식 기계가 받아 쓰는 상황이 될지도 모 립니다.

○**兼子次生(가네코 츠구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권의 소외감을 불식 시키고 인터넷 등을 통한 활발한 교류로 정보를 교환하며 아시아권만의 모임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 다.

○**홍순관 과장**;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며 돌아가서 협회와 상의하여 통 보해 드리겠습 니다.

○**Trivulzlo Giupaolo**;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인터넷 사 이트나 E-메 일로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인터스테노 사이트로 보내 면 서로 정보공유가 가능 하지 않겠는가, 또한 속기라는 것이 어떤 말 을 들어서 바로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속기의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다음 회의 때부터는 인터넷 사이 트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터스테노 회의에서 동양권이 조금 소외된 듯 하였으 나 지금은 동 양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7. 기타사항

- 각국 대표들 간 준비한 선물교환이 있었음.
- 중국대표들은 방문과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였음

8. 이후상황

귀국 이후 일본 측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기획하여 우리 측과 중국 측에 전달하 였으며 중국 측으로부터는 확답을 들은 상태이며 우리 측에 서도 이사회를 통해 긍정적으 로 검토할 예정임.

독일 연방의회 시찰을 다녀오면서

한 기 수

우리 일행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 제43차 INTERSTENO(국제속기타 자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에 머무르던 중 2001년 8월 2일에 베를린 주재 우리 공관의 협조를 얻어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독일의 속기제도와 회의록 작성과정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호 비교·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을 본관 입구에서 영접하고 안내한 사람은 뢰르벨 하이징 씨로서 현재 속기과에서 회의록을 검토하는 검토위원을 맡고 있는, 아주 자신만만해 보이는 여성 속기사였다.

다음은 이항노(베를린 공관)님의 통역 협조를 받아서 기록한 인터뷰 내용이다.

-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행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직도 건물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본래 이 건물은 옛 제국의회 건물로 사용되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연방의회로 보수해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입찰을 통하여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노먼 버스터경에 의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국의회 한 가운데 지점에 본회의장이 위치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정치는 투명해야 한다’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본회의장 외벽은 투명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를 방문한 일반인들도 본회의장 바깥에서 의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연방의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본회의장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회의장과는 다르게 지정석이 아니네요. 앞에 몇 줄만 책상이 있는데 의원명패도 없고 뒷줄은 아예 책상도 없는 데, 그렇다면 속기사들이 모든 의원들을 다 파악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연방하원의 의원수는 668명입니다. 그래서 의자도 정확히 668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여섯 줄까지는 책상이 있고 그 뒤부터는 책상이 없습니다. 명패가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들은 입장하는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의회에서는 연사가 발언을 하는 동안에 박수도 많이 치고 야유도 보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 되도록이면 안 빠뜨리고 다 기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어느 당의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다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668명에 이르는 모든 국회의원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선거가 있고 나면 대개 약 200명 정도의 의원들이 새로 바뀌는데 속기사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사진을 보면서 의원들의 얼굴을 계속 익힙니다.”

- 속기과의 조직 및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는 30명입니다. 이 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속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을 검토하는 7명의 검토위원이 있고, 검토위원이 검토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편집하는 2명의 편집위원과 그 위에 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기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30명의 속기사가 연방의회의 속기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연방의회는 본회의 중심입니다. 상임 위에서의 속기는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청문회 등 중요 상임위 회의만 속기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이외의 상임위 회의는 담당직원들이 의사록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에서의 속기 및 회의록작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기가 시작되면 속기업무에 속기사 15명, 타이피스트 15명, 그리고 검토위원 7명이 투입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속기사 자리는 회의장 앞쪽 중앙에 4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사와 검토위원이 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기사는 5분마다 교대하게 되고 검토위원은 30분마다 교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의 검토위원이 기록하는 사이에 속기사는 6명이 교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실(사무실과 분리된 2인 1실 작업실이 따로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음)에 올라와서 속기사는 한 조를 이룬 타이피스트에게 육성으로 불러주면 타이피스트는 그대로 입력하고 그 원고를 검토위원에게 넘기면 검토위원은 그것을 취합해서 검토를 합니다. 5분 동안 속기를 하고 다시 투입되는 데까지는 1시간15분의 여유가 있고 검토위원은 3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업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검토위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발언자에게 보내고 그 발언자는 2시간 안에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위원은 검정색, 국회의원은 파란색, 편집위원들은 녹색으로 수정을 하고, 수정된 원본은 속기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용에 관한 것은 발언자라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규정에 ‘발언자는 자기 연설문에 대해서 문법과 스타일은 바꿀 수 있어도 내용은 바꿀 수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위원의 입장에서 수정한 것이 내용에 관계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발언자한테 대화를 신청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과장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의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토위원들이 대화를 신청하면 합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기가 다르고 또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서 회기가 결정되는데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1년에 총 회기는 24주 정도 되는데 1주일 단위로 볼 때 대개 수·목·금이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 본회의는 대개 몇 시에 개의되고 몇 시에 산회를 합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일은 13시에 개의해서 대개 17시에 산회하고, 목요일은 09시에 개의해서 22시까지 계속되고, 금요일은 09시에 개의해서 16시에 산회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로 09시에 개의해서 다음날 03시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09시에 개의해서 16시 정도에 산회합니다. 회의시간 동안에는 정회를 하지 않고 회의가 계속 됩니다.”

- 아까 말씀 중에 상임위의 경우 중요 상임위 회의만 속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상임위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회의만 속기하는 것이 속기과의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회의’란 예를 들어서 세법이나 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회의로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개정을 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그 외의 상임위는 형식적인 안건통과 등 속기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간단한 회의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나라는 속기사 채용 새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떻게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독일에는 거의 모든 시에 속기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속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단위와 전국 단위로 속기경기대회가 열리고 있

는데 저희들이 그 대회를 참관해서 유능한 속기사를 발굴하여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친 속기사라야 되는데 그런 속기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혹시 속기과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속기과에서 발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기과 안내』라는 15쪽 분량의 소책자입니다. 그 책자속에는 속기과의 업무내용, 조직 및 인사, 본회의·상임위 작업과정, 그리고 모든 속기사의 인물사진 및 학력, 전공, 담당업무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자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속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남성이 많은 것 같아서 부럽게 느껴집니다.

“저희 나라도 전통적으로 의회 속기사는 남성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마는 점차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분의 1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86년도에 입사할 당시에는 제가 세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필속기의 뒤를 이어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속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독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연방의회에서는 수필속기만 채용하고 있고 연방주 중에서는 작센안할트라는 주에서 8명의 기계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계속기는 1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필속기의 속성상 기계속기를 배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계나 컴퓨터, 음성인식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속기업무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독일에서는 수필속기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속기과 내부적으로 인력감축을 위해 타이피스트가 아닌 속기사가 직접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작업을 하는 방안을 위한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현재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저는 13세부터 취미로 속기를 배우다가 적성에 맞아서 평생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기업무가 저의 직업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정해진 2시간 동안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 일행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았는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시찰과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비회기 중이라 속기사가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지 못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 지면을 통해 우리 일행이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통역을 맡아 준 베를린 주재 공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2담당)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

정 향 인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2001.6.9-6.10)는 21세기와 함께 출범한 새로운 임원진들의 첫 무대였다. 신임 이희규 회장님과 신희동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짜여진 임원진들은 첫 무대가 되는 이번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세미나 준비에 임했다.

먼저 사전준비를 위해 권영찬 준비기획단장을 필두로 5명의 선발대팀은 세미나 전날(6.8) 도자기의 고장 이천으로 출발하여 1박2일간의 세미나 일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행사 당일 아침, 국회사무처 내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있었던 속기 경기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천 지산리조트로 모인 속기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며 삼삼오오 세미나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96명의 속기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이경식 사업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와 디지털시대에 우리 속기인들이 기록문화를 주도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 이희규 신임회장의 인사말씀으로 그 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회사무처 주영진 의사국장의 ‘입법과정의 실제’라는 제1주제 발표가 있었다. 법률안 처리 절차, 한국국회의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 등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과정에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속기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의 윤여준 의원은 제2주제 발표에서 ‘토론문화와 기록문화’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실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은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거울삼아 ‘기록없는 나라’의 오명을 씻기 위해 기록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속기인들이 남기는 기록이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과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간단히 저녁식사를 마치고 모든 회원들은 야외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즐거운 게임으로 시작된 여흥시간은 가족들의 장기자랑, 국회의원들의 화려한 댄스공연, 멋진 캠프파이어, 입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바비큐 파티 등으로 이어졌고 1년만에 모인 속기인들의 밤은 그렇게 즐겁고 신나게 깊어만 갔다. 그러나 뒀니뒀니 해도 여흥의 꽃은 경품추첨! 식기세척기, TV자막기, 핸드프리 등등 경품의 화려함은 모든 회원들을 들뜨게 만들었고 여흥의 끝을 멋지게 장식해 주었다. 여흥시간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간 회원들은 1년 동안 밀린 여러 이야기를 쏟아 놓느라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아쉬움을 달래었다.

두 번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아침식사와 제3주제 발표, 도예촌 방문 등 나머지 일정을 점검하느라 바쁜 아침시간을 보냈다.

세미나의 마지막을 장식한 제3주제 발표는 국회사무처 김창진 사무관이 맡았으며 주제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른 속기실무의 대응’이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는 속기인들에게도 새로운 숙제를 제시한다. 제3주제 발표는 속기방법의 변화에 따른 대응, 속기사의 지위강화, 실무영역의 확충 등 우리 속기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음을 깨닫게 하

는 발표였다.

제3주제 발표가 끝난 뒤 모든 회원들은 넓은 장소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마치 누가 제일 예쁘게 웃는가를 시험하는 양 서로 입을 크게 벌려가면서, 크게 웃어가면서.

촬영이 끝난 다음 전날과 마찬가지로 화창한 날씨 속에 일부 지방의회 회원들은 일찍 귀가를 서둘렀고 일부 회원들은 도예촌으로 이동하여 직접 도자기를 빚는 기회를 가졌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만든 어설픈 작품이었지만 직접 작품을 만든다는 설렘은 남녀노소 모두의 입가에 함박웃음을 머금게 했다. 나중에 내가 만든 도자기가 사무실로 배달되어 왔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물론 도자기 실습을 못 하신 분이나 작품이 깨진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며 서로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제9회속기학술세미나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던 이번 세미나였지만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앞으로 세미나가 남긴 과제를 열심히 풀며 다가올 2002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진정으로 노력하는 속기인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3담당, 협회 홍보부 기자)

강북구 의회를 찾아서

최 윤 정

우리는 오늘 강북구의회를 탐방하러 한다. 강북구? 강북구의회? 뭘 좀 알고 가야겠지?

강북구는 서울시 북부관문으로 서울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르는 통과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이며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이 입지하고 있어서 서울시민의 안락한 주말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녹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도심이 환경공해에 시달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루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1994년 12월 22일(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으로 도봉구에서 분리·설치되었고 1995년 3월 1일 제1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 강북구의회를 향해 출발!

차 막힘이 두려워 일찍 나선 덕에 우리 일행은 일찍 도착했다. 건물은 바로 옆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구민회관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소박했는데 찬찬히 눈여겨볼 겨를도 없이 건물 뒷편으로 보이는 북한산 자락의 위용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느낌이었다.

커피를 앞에 놓고 의사팀(의사팀장 김형환, 의사담당주임 김홍수·하진수·황재경, 속기사 구연진·조정옥)과 방문팀(홍보부장 문선희, 홍보부기자 백순정·최윤정)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잠시 서로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 본

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 놓기 시작했다.

홍보부장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구의회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의사팀장이 답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바뀌지 않고 계속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직은 순환보직이라 자주 바뀝니다……” 대화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데? 맞다, 탐방 준비차 읽어 본 속기계 37호의 송과구의회 탐방내용과 비슷하다. 하기사 구의회 조직이나 인원 구성이라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궁금하신 분은 필히 속기계 제37호를 참고해 보시라.

그래도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건져 보자.

강북구의회에 소속된 속기사는 2명이라고 했다. 일이 많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쓴다지만 3개 위원회(운영?행정?건설위원회) 업무를 2명의 속기사가 모두 처리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무 속기사들은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들며 인원보강을 희망했으나 의사팀장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두 분 속기사가 모든 일을 무리 없이 해내고 있어 현재 충원계획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모두 기혼이고 어린 아이가 있는 터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인터넷 회의록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는 황재경 주임이 자상하게 답해 주었다.

“회의록이 발간되면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올리는데 현재 검색작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회의록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살린 인터넷 회의록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서 우리는 대민서비스를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는 강북구 의회사무국 의사팀원의 진지한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속기사들의 CAS 재교육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김홍수 주임이 답을 해주었다.

“96년부터 재교육을 시작했고 지금은 현장에서 CAS 기계를 활용합니

다……” 사실 재교육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인데 강북구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100% 통과했다는 것이다. 두 분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조정옥 씨는 속기사 충원을 희망했고 구연진 씨는 회의록 신속발간에 대한 부담감을 덧붙여 설명했다.

대부분의 조직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국가조직에 있어서도 어떤 예산이 필요한 만큼 쉽게 책정되고 집행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작은 정부 구현을 외치는 때에는 더 말해 뭐 하겠는가? 하지만 양질의 회의록 생산과 관리를 바란다면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적은 인원에게 부과되는 막중한 업무부담도 큰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1시간여의 대화 중 속기사의 위상강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팀장께서 속기사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대한속기협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직장상사가 아닌, 진심으로 속기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 상사임을 읽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에 우리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본다. 그러나 더 큰 성과를 위해서는 자리한 각각의 위치에서의 자발적인 협조가 촉구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겠다.

대화를 마친 후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았고 꼭 한번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찌나 걱정했던 나는 어디 갔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날이었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3담당, 협회 홍보부 기자)

< 강북구 소개 >

강북구는 한국의 명산인 북한산을 배후에 두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공기, 여기에 우이천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천혜의 지역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이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양주고을이라 불리다가 1949년에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고 그후 성북구, 도봉구 등을 거쳐 1995년 3월 1일 강북구로 분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강북구의회 연혁

제1대 강북구의회(1995. 3. 1 ~ 6. 30)

- 1995. 3. 1. 강북구의회 개원(도봉구에서 분구, 초대의원 25명)
초대 의장단 선출 및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
- 1995. 3. 2. 초대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 시민도시건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제2대 강북구의회(1995. 7. 1 ~ 1998. 6. 30)

- 1995. 6. 27. 제2대 강북구의회 의원선거(18개 선거구 31명 선출)
- 1995. 7. 제2대 제1기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총무, 재무복지, 도시건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1995. 12 제2대 제2기 의장단 선출
1996. 1. 제2대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제3대 강북구의회(1998. 7. 1 ~ 2002. 6. 30)

- 1998. 6. 4. 4대 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 중 제3대 강북구의회 의원 선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의한 선거구 및 정수조정으로 17명 선출)
- 1998. 7. 제3대 제1기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운영, 행정, 건설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 2000. 6. 제3대 제2기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현재 운영 중

재외공관 국정감사(구주반) 수행기

장 미 경

출발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지정된 좌석에 앉으니 정말 유럽으로 가기는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뜻하지 않게 발생한 미국 뉴욕시의 테러사건으로 결국 미주반은 출발하지 못했다. 불편하신 아버님의 모습과 막내님의 얼굴이 계속 눈에 어른거린다. 어머니가 계시니 잘 되겠지 애써 위안하며 눈을 붙여본다.

몇 시간을 날아갔을까, 지루함이 연속되는 12시간의 비행. 시계를 보니 한국시간으로 저녁 8시가 넘었다. 지금쯤 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저녁식사를 하고 있겠지. 가족들과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가족들이 그리워진다.

옆에 있는 박 외무관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영어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길래 무슨 내용이나고 물어보니 지구멸망에 관한 내용이란다. 아, 나도 책 1권 가지고 올 걸……

시계를 파리 현지시간으로 맞추고(시차는 7시간) 잠시 눈을 붙였다가 떠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파리 상공에 와 있다. 파리 시간으로 정확히 17시 30분에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힐튼호텔로 갔다. 우리가 묵은 힐튼호텔은 1박에 1,900프랑이라고 한다. 달러로 환산해 보니 약 270달러, 원화로 치면 약 35만원…… 우와! 되게 비싸네. 그래도 파리는 유명관광지라서 호텔 방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짐을 풀고 잠깐 옷을 갈아입은 일행은 프랑스대사관저로 갔다. 관저는 아름다운 미색의 고풍스런 건물이었다. 만찬 도중 또 하나의 임무인(?) 사진을 틈틈이 찍었다. 긴 비행시간 때문인지 시차 때문인지 만찬 내내 피곤이 몰려왔다.

파리

눈을 떠보니 새벽 4시. 어지간히 긴장이 되었나 보다. 오늘은 첫 국정감사일. 정신 바짝 차리자. 호텔 내 뷔페로 아침식사를 하는데 예상과 달리 프랑스 음식이 입맛에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워낙 잘 먹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

오전 10시02분에 주프랑스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16시50분에 감사종료. 태어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속해서 혼자 속기해 본 적은 처음이다. 손이 마비되었는지 주물러도 처음엔 감각이 없었다. 그래도 속기를 끝까지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바쁘게 호텔로 돌아와서 곧장 세느강으로 갔다. 1시간 조금 넘게 유람선을 타고 선장의 안내방송(불어, 영어, 일어로 나눔)에 따라 강 주위의 건물들을 감상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이색적이었으나 비가 계속 오락가락해 제대로 유람하기는 곤란했다.

세느강(La Seine)은 프랑스 중부지방에서 시작하여 도버해협으로 흘러드는 776km의 프랑스 제2의 강으로 파리 중심을 흐르고 있는데 수심은 약 26m이다. 강 중심에 '시테'섬과 '생 루이'섬이 있고 34개의 다리가 있다. 그중 '미라보' 다리와 '퐁네프' 다리는 우리에게도 귀에 익은 다리들인데 퐁네프(Pont Neuf)는 '새 다리'라는 뜻으로 16세기 후반에 건축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컬하다. 프랑스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로 유명해진 이 다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호텔로 돌아왔는데 좀 피곤했지만 에펠탑을 구경하러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바람이 무척 세게 불었다. 사방은 캄캄한 밤이어서 불빛들만 가득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필히 에펠탑은 낮에 올라야겠구만.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독일계 프랑스인 구스타프 에펠이 설계했다고 하는데 총높이가 320m이다.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파리시민들은 흉물이라고 하면서 철거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베르사이유 궁전과 노트담 대성당

잠을 깨니 새벽 6시. 간밤에 계속 비가 오락가락 했나보다. 전형적인 유럽의 초겨울날씨다. 오늘의 일정은 OECD대표부의 보고청취. 시차적응이 아직도 안 되었는지 계속 피곤하고 졸립다.

보고가 끝나고 시내에 있는 기메 박물관(Musee Guimet)으로 갔다. 기메

박물관은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예술품을 많이 소장한 박물관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 일행이 왔다고 하니 박물관 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소장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을 꽤 하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점심식사 후 일행은 베르사이유 관람팀과 모네의 집 관람팀으로 나뉘었다. 난 물론 베르사이유행을 택했다. 베르사이유 궁전은 17세기에 루이 14세가 50여년(1662-1710)에 걸쳐 루이 13세의 왕실 사냥터였던 베르사이유에 있던 작은 궁을 확장하고 건축한 왕궁으로 지금도 프랑스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파리 유학생인 마드모아젤 권의 실감나고 재미난 설명을 곁들여 차근차근 궁전의 각 방과 정원을 둘러보았는데 궁 전체에 가득한 그림들과 고가구들은 프랑스인들이 옛날부터 얼마나 예술을 사랑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었다. 복도 전체가 유리로 장식된 거울의 방과 프랑스 혁명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방은 특히 아름다웠다.

돌아오는 길에 파리 시내에 있는 노트담 대성당을 관람했다. 단순미와 장중함을 특징으로 하는 고딕 건축양식의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노트담 대성당은 ‘장미의 창’으로 알려진 스테인드글라스가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곱추 카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사랑을 그린 빅토르 위고의 명작 ‘노틀담의 곱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성당 위에 커다란 종이 있거나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은 아니란다.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발표한 후 시민들이 부서진 성당을 복구했다는 데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 속에 줄서서 지나가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이채로웠다.

돌아서 나오는 길에 성당 앞 광장 바닥에 조그만 원반이 있었다. 마드모아젤 권이 한번 밟아보라고 해서 일행이 다 한 번씩 원반을 밟고 나자 설명하기를 이것은 파리의 중심축인데 옛날부터 이것을 왼발로 밟으면 나중에 파리에 다시 오게 되고 오른발로 밟으면 다시 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오른발로 꾸욱 밟았으니 다시는 파리에 가보지 못하려나……

저녁식사 후 일행은 파리의 명물이라고 자랑하는 ‘Crazy horse show’를 보러갔다. 잠시 땀을 들이더니 마침내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인형같이 똑

같은 12명의 미녀들이 똑같은 군복을 입고 채식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들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거의 벗고 있었는데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조명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조명예술의 극치와 신비한 여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나오면서 왜 제목이 ‘Crazy horse show’ 인지 물어보았더니 모 의원께서 “오래 전부터 서양에서 말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대답하시는데 ???

오르세이 미술관

마드모아젤 권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르세이 미술관(Musee d'Orsay)에 갔다. 1900년 기차역으로 건설된 것을 1973년 박물관으로 개조한 오르세이 미술관은 모네, 르느와르, 고흐, 세잔느, 드가, 고갱 등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의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미술사를 전공한 이답게 마드모아젤 권은 고전주의 미술에서부터 시작하여 후기인상파, 표현주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꼭 고리를 이어가며 진품들 앞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 우리 일행은 그녀에게 힘찬 박수를 쳐주었다. 그녀의 설명은 미술에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미술애호 정신을 갖게 한 나머지 구내 기념품점에서 고흐와 모네의 그림을 몇 점 사게 했다.

바르샤바

서둘러 폴란드 바르샤바행 비행기를 타려고 드골 공항에 갔더니 입?출국 수속이 복잡하고 경비가 삼엄했다. 미국의 테러사건이 있고 난 후 새로 생긴 모습이라고 한다.

18시40분쯤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시내의 풍경이 어찌나 조용하고 깨끗한지……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보다.

저녁식사는 old town의 한 폴란드 전통식당에서 있었는데 독한 보드카의 맛과 폴란드 전통요리의 량에 무척 놀랐다. 폴란드인의 모습은 서구적이지만 정서는 동양 쪽, 그것도 한국인의 기질과 무척 흡사하다고 한다. 심지어 난폭 운전하는 것까지도 한국인과 유사하다나.

식사 후 old town의 밤거리를 산책하는데 퀴리 부인의 생가가 나왔다. 알고 보니 폴란드는 기초과학이 매우 발달된 나라로 노벨상 수상자를 무

러 7명이나 배출했다고 하니 새삼 저력 있는 나라로 느껴졌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폴란드에 우리 한국 차(대우차)가 많다는 것이다.
폴란드 차의 4분의 1 가량이 한국 차라고 하는데 IMF 이후 한국의 대우
본사가 구조조정 때문에 문체가 생기자 폴란드 현지에는 대우-FSO
공장도 매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한국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
다.

쇼팽 생가와 파비아 수용소

땅이 젖은 것을 보니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나보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공식 일정은 없고 쇼팽 생가에 가서 관람과 함께 쇼팽의 음악을 감상할
거라고 한다. 흠, 파리에서는 미술이더니 폴란드에서는 음악이라……. 괜
찮은 문화체험 국정감사 일정이로군.

오전 10시에 호텔에서 출발하여 1시간 동안 2차선으로 된 직선 길을 곧
장 달리는데 길 양쪽으로 폴란드의 전원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다. 비록
사회주의체제에 있었던 나라지만 민주화 수준은 우리보다 높아서 농가들
역시 넓고 깨끗하게 정돈된 예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중간중간 나타
나는 원시림도 폴란드에만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란다.

부지런히 쇼팽 생가에 도착하니 바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다. 쇼팽의
피아노 음악을 들으며 생가 주변의 숲을 산책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원
시림과 온갖 작고 예쁜 야생화들, 이슬에 젖은 풀잎과 도토리가 수북히
떨어진 오솔길을 걸으니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꿈같이 달콤한 산책을 마치고 생가로 돌아오니 일행 중 몇 분이 아리따운
한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오늘 쇼팽의 피아노곡을 연
주한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아나였다. 쇼팽 협회에서는 매주 일요일 11
시에 전 세계에서 촉망되는 피아니스트들을 엄선하여 초대해 연주를 시킨
다는데 이는 또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좋은 경력이 되기도 해서 일리
아나는 오늘의 연주를 위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기꺼이 러시아에서 비행
기를 타고 왔다는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파비아(PAWIAK) 수용소에 들렀다. 원래는 아우슈
비츠 수용소에 가려고 했으나 교통편과 시간이 맞지 않는 관계로 그 축소
판인 파비아에 들르게 되었다. 폴란드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고
문 받고 학살된 모습들을 담은 사진과 유품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인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의 승고함에 눈물이 났다.

주폴란드대사관 국정감사와 대우-FSO공장 시찰

오늘은 주폴란드대사관 국정감사하는 날. 정각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 대사관 건물이 너무 비좁아서 대사관저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거실의 침침한 불빛 아래 속기를 하려니 영 눈이 침침하다. 오후 1시가 다 되어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장 대우-FSO공장으로 출발.

현지의 대우 사장님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후 공장을 시찰했는데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찰 내내 대우차가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고 폴란드는 중·동구 유럽의 요충지로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대우 사장님의 말에 대우차 문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네바와 몽트로

오스트리아와 유고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뮌헨 공항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로 갔다. 유럽시간으로 16시50분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니 외교부 직원들이 나와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호텔은 바로 레만호 옆에 있었는데 밤이라서 레만호의 전경은 안 보이고 멀리 불빛만이 보인다.

이튿날 아침 예정된 일정보다 30분을 앞당겨 오전 9시30분부터 주제네바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제네바에는 국제기구 본부가 많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공관원들이 많았는데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외교관들의 모습에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이 이번 국정감사 수행의 또 하나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오후 3시30분쯤 일행은 스위스 몽트로(Montreux)에 갔다. 몽트로에는 교황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왕족과 부호들의 별장이 모여 있는 유명한 휴양도시로 레만호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다. 구절양장 같은 산길을 차로 한없이 올라가다가 곱스(caux)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해발 2042m인 로쉐 드 나이(Rochers de naye)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전기로 움직이는 산악열차는 중간중간 산을 뚫어 만든 터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면서 계속 절경을 보여주었다. 짙은 침엽수림이 있는가 하면 노란 민들레가 짙 깔려 있는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고 달력

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위스 농가의 모습이 훤히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아쉬움에 그저 탄식할 뿐이었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아까워 나중에 꼭 가족들과 함께 와야지 하고 몇 번이나 다짐하였다. 기차가 멈춰선 정상은 만년설과 안개가 짙게 깔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 1년 중 맑은 날은 며칠 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충 사진 몇 장 찍고 눈을 문쳐 서로에게 던지며 장난치다가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몸을 덜덜 떨며 기차에 다시 올랐다.

몽블랑

창 밖을 보니 어제와 달리 날씨가 흐리다. 벨기에로 가기 전 몽블랑에 오르기로 해 오전 9시에 체크아웃하고 짐은 공항으로 보낸 뒤 버스에 올랐다. 몽블랑(Mont Blanc)은 프랑스령이라서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여권을 복사했다. 국경이라고 해봤자 무슨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았는데 여권 검사도 아주 허술했다. 유럽은 서로 개방되어 하나의 국가처럼 서로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한참을 달려 샬모니(Chamonix)란 마을에 도착했다. 샬모니는 해발 1030m에 위치한 산골 마을로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과 몽블랑 때문에 유명해 졌는데 만년설을 뒤로 한 예쁘고 자그마한 이 마을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도중에 한번 갈아타며 오른 몽블랑은 ‘하얀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발 4807m의 알프스 최고봉이다. 연중 영하의 기온으로 만년설과 빙하를 볼 수 있다. 케이블카로 해발 3842m인 Aiguille du midi까지 올라갔는데 고지대라 산소가 부족해 걸을 때 약간의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옆의 외교부 직원이 빨리 건너나 뛰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날씨가 안 좋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얇은 옷차림에 암벽등반을 하러 가는 몇몇 외국 산악인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입이 짝 벌어졌다.

가족들 곁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시찰을 짧게 마친 뒤 일행은 다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브뤼셀 공항으로 갔다. 벨기에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파리지간으로 21시50분에 서울을 향한 비행기가 힘차게 출발했

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운 국정감사 수행이었다. 이제 2시간만 더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비행기보다 더 빨리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대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열리는데 일정은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

통일외교통상위원 전원이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각 반마다 3개~5개 나라를 순방하면서 각 나라의 현황보고를 듣고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1994년까지는 국회의원들만 해외에 나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녹음테이프에만 의존한 재외공관 국정감사회의록은 자연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부터는 속기사들도 각 반에 1명씩 배치되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각 반은 국회의원 7명~8명,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직원 1명, 속기사 1명, 외교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된다.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더이상의 직원 추가는 곤란해서 속기업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야만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관 측에서 전체 감사내용을 녹음해 주지만 가끔씩 녹음사고가 일어날 때도 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부치는 일, 뽀뽀한 감사일정과 뜻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 등 3명의 수행원만으로 십여 일간의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현황 및 세계정세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4담당)

잠긴 가슴

김 영 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치인가!
그저 남몰래 살아갈 뿐.

거리에 묻힌 우웁을 앞세우고
나른하게 나이든어가는 계절
낯설어지는 거리를 달으면
나의 환난도 근심도 멀어지겠지.

아침에

통화를 하다가 끊겨진 목소리는
황량한 도시의 저녁을 울리는데

나른 겨냥하고 있는
불안의 방아쇠는
언제쯤 나의 잠긴 가슴에
구멍을 뚫을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국제인권연구소 연구과정

김미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국제인권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 IIHR)는 프랑스 법학자 Rene Cassin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인권교육, 훈련, 연구를 위해 설립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으며 1968년 인권교육 관련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제32차 인권교육(Annual Study Session for Human Rights) 연구과정(2000년 7월 2일-7월 27일)에는 82개국에서 변호사, 교수, 연구원, 언론인, NGO 관련자, 공무원, 법학도 및 기타 인권에 관심이 있는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인권교육은 4주간 일정으로 국제 및 비교인권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Human Rights Law) 강의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의 학문적인 지식 향상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련한 다양한 현실적 문제와 경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의 발전 및 관련 기법, 종교의 자유 및 국제적 보호 장치, UN 및 관련 기구의 인권보호 장치, 지역별 인권보호 장치,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법 및 난민보호법 등이었다.

/출발 전에/

연수원으로부터 단기연수과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제인권연구소 주관 인권교육과정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붙어와 영문으로 된 프로그램 소개책자를 받았을 때 참으로 막막했다. 내가 인권에 대해 무엇을 알

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더구나 참가희망서를 작성하여 인권연구소에 보낸 다음 그쪽에서 OK를 해야 참석할 수 있다는 연수원 관계자의 말을 듣고는 더 황당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부터 스트라스부르크를 향한 준비는 시작되었다. 학교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영문 재직증명서를 동봉하여 국제우편으로 인권연구소에 보내 놓고는 그것도 미심쩍어 전화로 서류도착 여부를 확인했다. OK가 오기까지는 한 달.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특히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어찌다 보니 출발해야 될 날이 다가왔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첫 출발/

6월29일 아침,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김포공항에서 수속하면 공항이용료 50% 할인에다 이용객도 많지 않아 수속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사전정보 입수) 예산정책국 임채진 씨와 개화산 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 작성 등 수속절차를 마치고 공항 리무진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비가 많이 내리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려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임채진 씨(솔직히 이번 연수 건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와 신상에 대한 가벼운 정보교환을 했다.

공항에 도착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가볍게 점심식사를 했다. 파리행 13시30분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탑승이 지연된다는 방송이 나왔다. 약간의 불안감을 뒤로 하고 KE901편에 몸을 실었다. 신형 비행기라 모니터가 개인마다 하나씩 있어서 좋았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스트라스부르크행 국내선으로 갈아타려고 이동하는데 청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겨우 국내선 청사에 도착했는데 스트라스부르크행 비행기도 지연이라고 하면서 공항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료티켓을 주었다. 임채진 씨와 함께 긴장을 풀기 위해 맥주를 시켜 마시고 탑승시간에 맞추어 탑승구 앞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방송이 나왔다. 불어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직감상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것 같아 얼른 뛰어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탑승구가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첫날부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사히 스트라스부르크행 비행기에 탑승은 했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묵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 시간 정도 날아서 스트라스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뒤 짐을 찾고는 바로 인포메이션 센터로 향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르네까생 유스호스텔에 묵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예약해 주었다. 그때 시간이 오후 11시. 우리 둘은 택시를 이용해서 유스호스텔로 향했다. 정말 길고기~인 하루였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한 달/

둘째 날 슈만대학교(Robert Schuman)에서 한 달 동안 묵을 기숙사를 배정받았다. 5층(5층 건물)에 배정을 받고 올라가 보니 방이 아늑했다. 큰 원목책상 하나에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세면대 하나, 화장실과 샤워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다행히 강의 시작 전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 시차극복과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임채진 씨와 함께 연수과정 등록을 마치고 강의 교재를 받아왔다. 책이 한 가방이었다. 책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무거웠다. 한글도 아닌 영문책자였으니 오죽했으랴.

강의 첫 시간에 각자 소개를 했는데 한국 유네스코에서 온 서현숙 씨(한국 유네스코에서도 해마다 이 과정에 한 명씩 참가하고 있음),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온 박명준 씨, 다섯 살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박도임 씨, 한국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크리스티나, 그리고 임채진 씨와 나를 포함해 한국계는 다섯 명이었다.

강의는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점심시간 11시30분-1시30분)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으며 1주일에 2시간씩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는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수업을 끝내고 세미나까지 참석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버렸다. 물론 세미나가 없는 날에도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오면 저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이 샤워하고 침대에 쓰러지기 일쑤였다. 대학 다닐 때의 추억이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수업이 주는 무게감과 마지막 주에 있을 테스트가 계속 마음에 걸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점심에는 주로 학교 구내식당을 이용했는데 수업 끝나고 가면 닭고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거의 매일 칠면조 요리와 감자를 먹었는데 식성은 까다롭지 않아서 먹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었다. 평소 때는 빵을 즐겨 먹지 않는 편이었지만 거기서는 빵도 꿀맛이었다.

수업 중에는 주로 도입 씨 옆에 앉아서 공부했고 브레이크 타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제대로 이해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을 도입 씨에게 물어가면서 나름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는데 평소에 법학이나 인문학, 세계사 등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터라 더 애를 먹었다. 참석하신 사람들은 저명한 교수들 강의 못지 않게 그럴싸한 질문들을 계속 했다. 강의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대에서는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이 과정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공부했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토론도 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부러웠다.

아시아는 중국, 필리핀 등에서 참석했는데 일본에서 참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첫째?둘째 주에는 집 생각, 서울 생각이 많이 났는데 셋째 주에 들어서니까 마지막 주에 있을 테스트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인지 잡념이 많이 사라졌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하고 임채진 씨, 명준 씨, 도입 씨와 팀을 구성했다. 각자 공부하고 8시에 모여서 매일 2시간씩 스터디를 하기로 했다. 연수원에서는 수료증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말라고 했으나(이 과정은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수료증을 주지 않음) 부담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대형 강의실에서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치러진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시험장 문을 나서니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다. 모두가 아쉬움을 가득 안고 스트라스부르크의 거리를 쏘다녔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솔직히

한 달 동안 시내를 나간 게 두서너 번 되려나) 어차피 다 이해하지 못할
강의였는데 시내구경이라도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가 막심했다.

/주말마다/

빡빡한 강의일정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주말마다 가까운
나라(?)로의 여행이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출발했다.
첫째 주에는 파리,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파리 동역까지는 기차로 4시간 정
도 걸렸다. 민박집을 예약했기 때문에 역에 내리자마자 민박집으로 향했
다. 전철 종점역이라서 찾기도 쉬웠다. 일단 짐을 풀고 민박집(사빈의 집)
아주머니의 유창한 파리 시내관광 안내를 경청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지
도를 들고 지하철과 11호 자가용으로 파리를 누볐다. 파리 지하철은 너무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했다. 파리 지하철에 비하면 서울 지하철은 일류에
일류급이다. 몽마르뜨 언덕, 샹제리제 거리, 개선문을 지나 에펠탑에 이르
렀다. 에펠탑 전망대에 오르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줄이 너무 길어 받은
걸어서 올라가는 루트를 택했다. 정말 엄청난 에펠탑이었다. 에펠탑에서
내려와 유람선을 탔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비도 꽤 많이 오고 있었다. 임
채진 씨 말처럼 파리는 정말 ‘조명발’이었다. 거의 12시가 다 되어 민박
집에 도착했고 그때까지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은 베르사이유 궁전에 갔다.

교외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렸던 것 같다. 웅장한 베르사이유 궁의
규모 앞에서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졌다. 엄청난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생 배낭족들, 급기야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관광객들과 합류해
서 단체입장표를 샀다.(할인!) 파리의 날씨는 금방 맑았다가 금방 비가 왔
다 해서 중잡을 수가 없었다. 거의 하루종일 베르사이유 궁에서 헤맸는데
도 다 보지 못했다. 궁전안은 생각보다 볼 게 없었고 정원은 그야말로 환
상적이었다. 마치 18세기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으로 정원
을 거닐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시 파리시내로 와서 파리의 먹자 골목(민박집 아주

머니가 추천한 곳인데 정확한 지명은 생각이 나지 않음)으로 향했다. 세계 곳곳에서 밀려온 국적불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고르다 고르다 지쳐서 그리스 전통음식을 먹기로 했는데 맛도 그다지 없었고 지친 나머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다음날은 루브르 박물관.

일요일이라 50% 할인된다고 해서 좋아라 하고 갔더니 어쩐된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포기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들어가기로 함의를 봤다. 거의 2시간 가량 줄을 서서 표를 샀는데(파리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생각하면 정말 열 받는 동네였다)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어쨌든 줄서느라 진을 빼는 바람에 박물관 구경은 거의 건성으로 한 것 같다. 스트라스부르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동역으로 갔고 기차가 연착되어서 밤 12시가 넘어 도착했다. 그 낯선 곳에서 기숙사까지 걸었다. 다행히 새벽 1시30분에(새벽 2시가 되면 기숙사 문을 닫음)에 끝인, 객지에서 이게 무슨 사서 고생 이람!!!

둘째 주는 독일행.

국경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독일까지는 기차로 약 20분 거리, 하이델베르크, 뷔르츠부르크를 거쳐 로텐부르크에서 뤼셴까지의 로맨틱 가도를 달렸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 중에 독일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다.(뤼셴은 숙소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거리에서 밤을 쉰 뻔 했는데 중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만나 싼 숙소에서 편안히 잘 지내다 왔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도 친절하고 영어도 통하고(??) 도시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다.

셋째 주는 오스트리아, 일명 쿨셋이라고 부르는 침대차가 있는(말만 침대차고 그냥 의자를 펼쳐서 잠자는 정도)밤 기차를 타고 잘즈부르크에 도착했다. 온종일 비가 내려 구경도 제대로 못 하고 유스호스텔에서 잠만 자다가 다음날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를 했다. 사실은 포기하고 돌아가려다 역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이 안 보고 가면 평생 후회한다고 하는 바람에 시도한 것이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주에 있을 테스트가 못내 신경 쓰여 빨리 스트라스부르크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기차에서도 내내 마음은 무거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연수과정을 마치고 스위스와 로마로/

마지막 주 테스트를 마치고(아무 것도 아닌 시험이었지만 나에게는 부담감이 꽤 컸다. 수료증을 받아들었을 때는 어쨌든 또 하나의 과정을 마쳤구나 하는 안도감에 기분이 좋았다.) 명준 씨와 임채진 씨, 나 셋이서 스트라스부르크 시내를 발로 누볐다.(다 끝나고 나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물결이 말이 아니었다.) 이날은 인권연구소(슈만대학교와는 버스로 30분 거리에 위치)와 대성당, 뷔띠 프랑스 등등 시내 곳곳을 돌았다. 거의 밤 12시가 넘어 다시 대성당(대성당의 조명쇼와 음악이 어울어지는 한마당은 정말 환상적이었음) 앞에 갔더니 낮익은 얼굴들이 많았다. 서로 부둥켜안고 내일이면 헤어질 아쉬움을 달랬다. 새벽 2시경 기숙사로 돌아와 대충 짐을 싸고 잠자리에 들었다. 스트라스부르크와의 이별이 너무 아쉬워 새벽 5시경에 일어나 트램(시내 전차, 유럽에서 내가 본 전차 중 가장 아름다운 전차였음)을 타고 시내를 일주했다. 돌아와서 구내식당에서 한 달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명준, 도임, 크리스티나, 폴비아, 밥, 이메큐레이트, 다리나)와 작별인사를 하고 역으로 향했다.

다음 목적지는 스위스 루체른(필라투스 정상과 유람선)과 인터라켄(용프라우)이었다. 용프라우 정상에 가면 컵라면을 준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하고 그 생각만 하면서 올라갔는데 서비스가 끝났다는 안내문을 보고서는(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았기 때문) 실망에 또 실망..... 배낭에 넣어간 사과를 꺼내 눈발에 씻어 먹으며 섭섭함을 달랬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나 싶더니 임채진 씨가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인터라켄 경찰서에 출두(?)해 서류작성을 하고 또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임시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대사관이 있는 베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때는 참 난감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큰 경험이었다.

다음날 유스호스텔에서 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더니 ‘레간자’가 도착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 택시기사한테 차가 어떠냐고 했더니 계속 ‘good, good’이라고 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았다. 나가면 다 애국자다 된다더니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밤 기차를 타고 로마로 향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눈을 땔 수 없을 만큼 사로잡는 로마의 유적들(포로로마노,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개선문, 카타콤베, 바티칸 박물관), 환상의 섬 나폴리와 쏘렌토까지 40일 간의 유럽 첫 나들이는 이렇게 끝이 났다.

/뒤돌아 보면/

메모 한 장 없이 정신없이 보낸 40여일을 곰곰이 되돌아보니 그때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유는 뭘까? 지면상 소개하지 못한 에피소드도 많은데 생각해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그렇다. 요즘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 내가 스쳤던 장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클로즈업 되면서 묘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평소에 인권에 대한 공부나 유럽지역에 대한 사전공부를 많이 해 갔더라면 보다 값진 시간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것 역시 나의 욕심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배낭여행하는 한국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과도기이겠지만 일본 대학생들은 특정 테마를 정해서 여행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 대학생들은 막연히 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

어쨌든 무사히 연수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같이 있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옆에서 힘이 되어준 임채진 씨와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연수국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협회 국제부미주부장, 국회사무처 속기1과2담당)

선 和 堂 日 記

장 기 태

오늘은 12월 31일, 2001년의 마지막 날이다.

밤 8시가 넘어 충주역에 도착하니 이 지역에는 며칠 전 제법 많은 눈이 내렸단다. 서둘러 택시를 불러 흥정하고 우리 읍(국회국선도수련회)의 수련장이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내 미륵리로 향한다. 수안보까지는 그런 대로 넓은 길이라 차가 많이 다녀 눈이 얼마간 녹았는데 수안보에서 미륵리 쪽으로 접어드는 산길부터는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 날씨는 더욱 차가워지고 바람은 심하게 부는데 불빛도 없는 눈 쌓인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 긴장으로 입안에 자꾸 침이 고여온다.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나? 2002년 새해 아침해를 하늘재에 올라 맞겠다는 마음으로 이 밤길을 가고 있다.

미륵리에 도착하니 쌓인 눈이 더욱 깊어 밤길에 다시 차를 돌려 가야 할 택시기사에게 무척 마음이 쓰인다. 거둬 조심운전을 당부하고 내일도 부르면 와 달라고 부탁해 둔다.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이다. 요 위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미륵사지가 있는데 현재 30호 정도 되는 이 마을도 원래는 미륵사지에 인접해 있었지만 미륵사지가 유적지로 개발되면서 동네 전체가 지금의 위치로 이사를 하였다고 했다.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 대문앞에 이르니 ‘선和堂’이란 현판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나타나고 내 마음은 금세 훈훈해진다. ‘요만한 걸 마련하느라 얼마나 애썼노’ 하며 자위해 본다.

국회 국선도수련회는 '84년 고대 출신으로서 국선도 법사로 활동하던 임경택 씨(현재 목포대 교수)가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생활인의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생겨났고 올해로 벌써 18년째가 된다. 여자를 회원으로 맞아들인 것은 93년부터이고 이때 이대숙 씨 등 3명이 들어왔다. 이후 양진숙, 이시정, 김은경, 이순영 씨..... 줄줄이 들어오더니 현재는 등록회원 100여명 중 거의 3분의 1이 여자 속기사들이다. '98년부터 이들을 지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과 어깨부분이 매우 약하고 심약한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도서관 여직원들의 입회가 늘고 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급격한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면서 업무량은 계속 가중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컴퓨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전에 없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비단 이들뿐이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채 떠내려 가고 있다. 심신의 균형을 잃은 것은 곧 질병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현대인은 기본적인 균형은 잃어가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의 단적인 지식정보에 의존하여 약물이나 운동 등으로 균형을 쉽사리 회복·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즈음의 생명공학은 조만간 인간의 질병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일부는 전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균형을 회복하고 진정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국선도 수련은 본래의 자연스런 호흡과 동작으로 잃어가는 균형을 되찾도록 하여 생명력을 충일케 하려는 과정이다.

지난해 8월 말경 연맹에서 일하는 양진숙 씨로부터 적당한 수련터 소개가 인터넷에 뒀다는 연락이 와서 그 주말에 미륵리로 내려가 계약을 한 후 집수리를 위해 먼 길을 오르내리기를 여러 차례, 11월 18일 드디어 회원들과 함께 ‘開堂式’이라는 것을 하였다. 직장에서의 일과 겹쳐 참으로 바쁘게 보낸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 중에 새로 마련한 수련장의 작명을 두고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이 당연히 선和堂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많은 이가 국선도로 하나 되고 국선도 수련으로 균형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라는 뜻에서다.

도착 즉시 몸을 풀고 저녁을 해 먹는다. 차를 달여 마시고 잠시 쉬 후 2년에 걸쳐 수련한다. 새벽수련 때 옆집 장닭이 길게 울었고, 어둠이 점차 가시면서 크게 만든 남과 북의 창에는 고요하게 새벽산이 자리잡는다.

이 고요한 자연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다는 행복함이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필요성

김 용 성

1.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 탄생과 현황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역사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이하생략)’라고 하여 대다수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보장의 문을 열었으나 1961년 군사독재 초기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전면금지 시킨 후 오랫동안 공무원의 노동3권은 보장받지 못하여 왔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1989년 3월 7일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개정법률안이 야3당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현 대통령의 공무원노조 인정이라는 대선공약과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압력에 떠밀려 1998년 1월 15일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여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의 설립이 허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제도는 하위직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보다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의무만을 강조함으로써 설립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제도의 운영상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2400여 설립대상기관 중 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270여개에 불과하며 가입현황 공무원도 10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이 부진한 이유는 그 주체인 하위직공무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직장협회의에 대한 기관장이나 간부들의 인식부족, 일방적 의사소통에 익숙해진 공무원 사회의 속성, 직장협회가 가지는 한계 등에서 우선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직장협회는 공무원노조 도입의 전단계로 공무원의 단결권과 기관내 부사항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준노조 성격의 실험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직장협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그 활동범위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협회의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공무원 대다수가 염원하는 보수, 후생복지, 근로조건 개선 등 공무원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관행타파, 상명하복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비민주성, 국가정책이나 기관내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하위직의 철저한 배제 등 실제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함으로써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허용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협회의의 연합체 설립금지 등을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금지함은 물론, 가입대상자에 대한 모호한 해석과 지나친 제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 미보장, 임원신분의 미보장, 근무시간 중 활동금지 등 법률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독소적인 조항을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제한함으로써 협회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공무원직장협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조차도 직장협회의의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고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공무원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법률에서 정한 협의사항의 제한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만 한정되어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민간노동자들에 비해 일반공무원들의 권익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물론, 관료화에 따른 의사결정과 근로조건 결정 시 소외감의 심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에 대한 보완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직장협의회법의 제한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사관계정책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인정하였지만 그 관계설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그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언급한 연합체 금지, 전임공무원 금지, 근무시간 중 활동금지의 통제성은 물론, 그 주관도 행자부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2. 전국적인 공무원 조직의 태동과 활동

현행법과 시행령의 제재조항으로 인해 2001년 초까지만 해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매우 미미해 ‘있으나마나’ 한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공무원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 조직된 이후 법에 규정된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인사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합의하거나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내부부조리 타파 등의 행정개혁에도 역점을 뒀은 물론, 연금법 개정과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초기 위촉된 활동범위를 벗어나 공무원 내부조직과 외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설립을 금지한 시행령 및 규칙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진정한 공무원 근로조건 향상과 공직사회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전국의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경제사정 등의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다가 공무원연합체인 전공련이 탄생하자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와 노조도입을 위한 고민을 하기는커녕 행자부가 주동이 되어 ‘전공련’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행자부는 2001년 3월 2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공련 대의

원대회의 방해공작(행자부의 방해로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됨)을 자행하였으며 이도 신통치 않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연합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는 등 오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6월 9일 창원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공무원결의대회에 대해서도 집요한 방해공작과 회유를 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들의 의지와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

이에 전공련 지도부 4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01년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각 지역의 성당에서 지도부 4인의 농성과 전국공무원들의 항의시위와 집단연가 등 강고한 연대투쟁의 의지를 보여 주었고 이들 지도부에 대한 탄압도 결국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는 망신을 스스로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후 7월 28일 부산역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공무원결의대회, 11월 4일 서울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공무원결의대회, 12월 26일에 벌어진 차봉천 전공련위원장(국회사무처공무원직장협의회장) 긴급체포와 영장기각 등 행자부가 주동이 된 전공련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공련은 전국공무원들의 희망의 중심축으로 우뚝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놀란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조만간 공무원노조 인정’이라는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으나 공무원의 주체세력인 전공련이 배제된 공무원노조문제 논의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여론호도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망의 2002년 3월 24일 범외노조도 불사한다는 전공련의 의지가 이미 표명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해 미력하나마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온갖 탄압과 회유를 뚫고 투쟁하여 온 결과물로서 이는 공무원사회의 개혁은 결국 조직인 스스로의 자주적인 힘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준 것이며 이제 공무원사회에도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3. 공무원노조의 당위성

전공련이 주장하는 제일의 모토가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임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국내외적인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서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ILO, OECD, PSI, 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 불인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노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이외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당하고 시대요청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로, 공무원노동조합 인정은 현 국민의 정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화의 거두,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속히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천부인권에 속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당위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함은 물론,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근거는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길 경우 그 판단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으라는 의미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권리는 협의나 규제 대상이 아닌 천부인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천부인권의 권리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하게 입법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셋째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등 공직사회 개혁과 행정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사회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반부패지수 순위에서 총 조사대상국 95개국 중 4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

국민 한국이 세계적으로는 중간에도 못 미치는 불명예스런 부패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5%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를 부패한 나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는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는 국민의 신뢰성 상실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비능률성, 예산의 낭비 등 고질적인 병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한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일방적 지시문화의 타파와 현상유지의 타성에 길들여진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함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의 과오를 줄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의 창의력과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등 행정의 생산성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공무원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받았다고보다는 일종의 특권층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한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상명하복식의 일방적 지시문화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직문화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 작은 조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의에 따라, 또한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길에 공무원노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지금은 비록 협의회라는 미약한 조직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떳떳하게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믿는다.

(국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위원)

특하면 손대는 ‘속기록’

여야가 또 기록을 없애려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중 ‘6·25가 세 번째 통일시도’란 부분을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이 문제삼으면서 김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거론하자 민주당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일부 ‘수정’만 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어쨌든 국회의 기록을 손보겠다는 것엔 차이가 없다.

속기록 삭제는 이번에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오면 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곤 했다. 작년 11월 14일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대북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조선노동당 2중대’에 빗댔을 때도, 작년 11월 29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로 다루겠다”고 말했을 때도 각각 민주당, 한나라당이 들고일어나 속기록을 삭제했다. 그래서 당시 속기록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남아있지 않다. 그 속기록을 보면 중간중간에 ‘...’ 표시가 나타날 뿐이다. 우리나라에 의회제도도 도입된 이래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정치인들은 말한다. 앞으로 여야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속기록뿐 아니라 국회 녹화테이프까지 없애자고 나올지도 모른다.

국회 속기록제도는 국사(國事)의 현장에서 언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없애버리는 것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선 역사의 변조이자 사실의 조작까지 될 수도 있다.

속기록을 없앤다고 이미 한 발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화풀이’를 위해 역사기록을 변조하는 행위를 의원들이 별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다.

/조선일보 2001년 10월 13일자

/최병욱 정치부차장대우

속기록 삭제는 잘못된 관행

여야가 또다시 속기록 삭제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총무는 지난 21일 예산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되었던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토론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기로 24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으로는 정 의원의 발언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못했다는 명분을 얻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속기록 삭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속기록 삭제는 잘못된 관행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법> 제117조제1항은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당 총무의 24일 합의는 ‘회의록 배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위반했다. 본회의 회의록은 다음날 발간되기 때문에 22일 오후 5시까지가 자구를 정정할 수 있는 시한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회의록은 그 내용이 확정돼 그 이후의 정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한시간이 이틀이나 지난 속기록 삭제 합의는 명백히 허용 시한을 넘긴 국회법 위반이다.

특히 이 점은 지난 2000년 2월 헌법재판소가 한일어업협정 날치기 처리 사건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당시 헌재는 판결의 근거로 ‘국회회의록이 잘못되었으면 야당 의원들이 이를 신청해 정정할 수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반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장내소란’으로 기록되어 있는 속기록을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바꾸었으면 날치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는 27일까지 아예 21일 속기록을 배부하지도 않았다.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제4조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에’ 본회의, 운영위, 예결위는 다음날까지 임시회의록을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규정위반인 것이다.

<중략>

얼마 전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과정에서 속기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내려진 조치로 짐작된다. 국회는 언제까지 속기록 삭제라는 못된 관행을 되풀이 할 셈인가.

/내일신문 2001년 12월 28일자

/정당팀 장병호 기자

【알고 갑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엇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된 발언을 속기록에서만 삭제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듯하다.

사실 속기록에 있어서 삭제란 없다. 단, 단서규정을 두어 배부회의록에만 게재하지 않을 뿐이다. 보존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서 영구보존된다.

보다 신중한 발언을 기대하면서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國會法

제117조(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①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 議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第118條(會議錄의 配付·頒布) ①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그러나 議長이 秘密을 요하거나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發言者 또는 그 所屬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 ①본회의·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회의록은 임시회의록을 발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회의일까지 배부한다.

제5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등) ①보존회의록은 법 제1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해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

제20조(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의 표기) 의장이 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을 포함한다)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으로 표시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밑줄 친 부분은 國會法 제1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1999 인터스테노 참관기 II

김 영 중

※이 부분은 속기계 제36호에 실지 못했던 1999 인터스테노 참관기 뒷 부분입니다.

--속기계 제36호와 겹치는 부분--

7월29일 (목요일)

아침부터 서둘러 일과가 시작되었다.

우선 4층에 들러 회원명부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워낙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인지 알파벳순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10권도 넘었다. 우리는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보고 이를 놓칠세라 얼른 서터를 눌렀다. 그리고 우리들의 매력 포인트인 신종식 씨의 이름도 써넣었다.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머핀과 커피를 먹은 후 Wellesely Hall로 갔다. NCRA로서도 Real time 속기경기대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는데 경기에 참가할래야 할 수 없는 우리는 미리 주최측에 참관을 부탁해 놓은 터였다. 기대감에 부푼 탓인지 일본에서 온 가네꼬 상과 아라키 상도 약간은 들떠 보였고 실제 속기경기대회 참가자들보다 우리가 더 떨고 있었다. 긴장이 될 법도 한데 여유만만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웅성거리던 Wellesely Hall이 순간 조용해 진 것은 경기시작 불과 1·2분 전이었다.

시험 직전에 지극히 전문적이고, 최신어라 여겨지는 대여섯 개의 단어를 칠판에 적어 주고는 이내 지웠는데 각자의 약어를 만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그 몇 개의 단어 덕분에 환경관련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 ❀❀ --

이어지는 이야기

3분 남짓의 테스트가 종료됨과 동시에 각자의 속기파일은 주컴퓨터에 자동 전송됨으로써 - 처음 파일명을 줄 때 이미 수험번호가 들어가 있으므로 - 마무리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바로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우리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부러운 광경을 본 귀중한 3분이었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숨죽여 보느라 긴장한 탓이었을까? 몹시 갈증이 났다. 그리고 보니 아침도 걸렸다는 사실이 생각난 우리는 Grand Ballroom으로 서둘러 자리를 옮겼다. 거기에서는 11시부터 Star Spangled Brunch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넓은 홀에는 수 백 명의 속기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거짓말 같은, 행운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

우리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녀는 현재 보스톤에서 속기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자, 정확히 말하면 교포 2세와 결혼한 절반은 한국인이었다. 또한 한국어도 가끔은 섞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 우선 목을 축인 우리는 마음이 급해졌다. 점심 식사는 하는 등마는 등 하고 그녀의 사무실에 가보기로 작정한 우리는 길을 재촉해 걸으면서도 연신 묻고 반쯤 알아들은 대답을 가지고 또 묻고, 그렇게 질문과 대답은 끊이지 않았다. 그 작고 아담한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우리 일행은 하나라도 더 알아보겠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다. 무엇이 그리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난다.

그리고 보니 종일 긴장과 학습?의 연속이었던 하루다. 이렇듯 피곤하고 지친 날에는 누구나 꼭 생각나는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거의 만장일치로 SPORTS(OB베어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라는 호프집에 들어갔다. 오늘 일과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리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알차기만 하다면, 싶을 정도로 짝 짜인 일정의 연속이었다.

미라 씨와 나 둘이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로 치면 원로들과 후배속기사의 만남의 장 정도라 할 수 있는 OLD/FIRST TIMER MEETING에 참석하여 뉴욕에서 온 프란을 만났는데 그는 서울에도 와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사실 우리가 만나고자 했던 워싱턴에서 온 속기사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호텔로 돌아와 북어국에 햇반으로 늦은 저녁을 먹고 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야호, 이래저래 잔뜩 부푼 기분에 우리는 밤늦은 시간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호를 듯 넘칠 듯 하는 네모난 호수?가에서(강물같은 느낌) 나는 어찌면 우리가 이제 42.195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돌아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호수인지 강인지 모를 그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

7월30일 (금요일)

7월30일 금요일 아침. 공식적인 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우리에게는 마침 행운의 여신이 주신 두 장의 초대권으로 일본의 가네꼬 상과 아라키 상을 Centennial Breakfast에 초대, 같이 자리를 했다.

NCRA회장인 VICKY와 다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거대한 조직인 NCRA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수하고 밝은 웃음을 띠고 있는 Vicky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회장 인사가 끝나고 이어서 ANN이라는 ABC방송국의 앵커가 NCRA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 두 여자(누군지 아시겠지만, 미라 & 영중)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그녀의 이야기에는 동양적 정서가 바탕에 흐르고 있어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큰 박수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인까지 받아든 우리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떴다. 그러는 동안 천방지축 우리 두 망나니를 너그러이 봐주고 연신 사진까지 찍어준 두 분의 Mate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아니 해야겠다.

거의 11시 정각이 다 되어서야 IPRS WITH NCRA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

어찌보면 이번 출장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이 회의의 참석에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져 움을 느꼈다. 존재의 이유가 아닌 출장의 이유를 되새기며 회의장 문을 열었다.

영국의회 속기사인 Peter walker의 사회로 시작된 IPRS 회의에서 스코

틀랜드 의회속기사는 회의록 발간에 대해 프로젝션을 통해 발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우리는 속기협회에 대한 소개와 의회회의록의 전산화 내지 기계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는데 캐나다의 Ron은 이미 기계화 과정을 거친 자국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 알고 보니 방금 전 Centennial Breakfast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나눈 바로 그 사람이었다.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느끼면서 우리는 RON과 좀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IPRS회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Ron을 만났다. Peter walker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IPRS의 차기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Ron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와의 대화에 응해 주었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우리는 뜻밖의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Ron과의 대화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에 답아와 혹시 현장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을 보완한 것은 우리가 해낸 기특한(?) 일 중의 하나로 기억된다.

행사도 끝나고 우리는 INTERSTENO의 구출러 회장하고 각국에서 온 IPRS 회의 참가자들과 단체기념사진도 찍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도 하고 기념품도 나누고 서로 작별 인사도 했다.

이제 다 끝났다……, 끝 난 것 이 다 !

7월31일 (토요일)

어제 저녁에 Champions에서 약간의 과음을 한 덕분에 머리가 조금 지끈거리지만 오늘은 보스톤을 떠나 L.A로 간다는 것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 아침이다. 하늘도 파랗고 맑아서 서울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하게 된다. 그렇지만 더 머무를 수 없는 곳.

가방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NCRA 기념공원을 둘러보니 엇그제 Marriott Copley Hotel Wellesley Room에서 열렸던 바로 그 National Realtime Competition 의 결과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 1위 Mark Kislingbury 99.1점
- 2위 J. Edward Varallo 97.6점
- 3위 Karla Wollin Boyer 95.6점 이었다.

서둘러 Battle trail tour를 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공식 일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이처럼 흥가분하다니, 요 며칠 동안 우리가 큰짐을 지고 있었나 보다. 순간 말로만 듣던 ‘하버드大’가 눈앞에 있다. 교정을 뛰어 다니는 다람쥐조차 특별해 보일 만큼 그동안 우리는 ‘하버드’에 세뇌 당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부러운 일은 단지 대학의 교정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만큼 유명?해진 ‘하버드大’가 아니라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인재들이라고 속으로, 속으로 생각했다.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인지 넉넉한 인심을 지닌 듯한 마을 주민들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며 호텔로 돌아와 어제 갔던 Champions에서 치킨과 빵, 맥주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맡겨놓은 짐을 찾았다. 키가 큰 꺾다리 아저씨에게 팁으로 5불을 주었던니 얼굴보다 더 큰 미소가 번진다.

15시 40분.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 B터미널로 갔다.

28번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 웃었다.

아, 정말 임무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AA항공사 소속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정확히 17시 10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보스톤을 떠난다 생각하니 마치 정든 고향을 떠나는 듯해 묘한 감상에 젖는다.

붉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야 할 비행기는 아무 말 없이 2시간을 그렇게 활주로에 서 있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보스톤은 깜박이는 불빛으로 남았다.

우리는 지금도 보스톤과의 이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도 꼭 하고픈 말

지루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매듭이 굵은 동아줄을 만드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맺습니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3담당)

벽 난 로

곽계안(2001년 4월 국회 퇴직)



* 친구들에게 *

너희들을 뒤로 하고 김포공항을 떠나 여기 캘거리로 온 지 벌써 9개월이 넘었다. 아득히 먼 일 같기도 하고 엇그제 일 같기도 하구나.

한국의 매스컴에서 이민생활에 대해 많이 방송해서 대충 이민 1세들의 생활이 어떤지는 짐작하겠지? 더러는 과장되고 더러는 어두운 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더라. 가끔 외국영화나 책에서 벽난로 앞 흔들의자에서 술을 어깨나 무릎에 얹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나 머리 희끗한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려질 때 참 평화롭고 여유 있게 느껴져서 나도 언젠가는 벽난로에 불 지피고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지.

생각지도 않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벽난로 앞에 앉아 있다. 하지만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그 모습들이 이곳에서의 현실일 줄이야!

이곳이 건조한 곳이라 영하 몇도 정도는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래도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집안에서도 추위를 느낀단다. 한국에서
처럼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낼 정도로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면 가스
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나무를 가져다 불을 피워 놓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
곤 하지. 내가 상상했던 영화에서의 아름다운 한 장면은 아니더라도 그래
도 커피 한 잔 들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
다. 너희들과 수다 떨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하지. 너희들과 같
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여기서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제일 힘든 것은 오랜 친구
에 대한 그리움이란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민을 왔지만 막상 와 보니 어느 면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훨씬 못한 점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혼동이 되곤 했는데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도 되는 나라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곤 한단다.

이 나라에 있는 나무만 팔아도 150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풍부한 자원
이 있는 나라이지만 남 신경쓰지 않고 내실 있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배우려고 한단다.

아직은 좋은 면보다는 힘든 면이 더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좋은 모습으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켈거리에서 친구가.

남해군 해안일주

이동운(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지난 11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해군 해안선 답사에 참가하면서 기행문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속기회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

*11월 15일 오전 9시 쾌청한 늦가을의 날씨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지족항을 출발하면서 평소 무덤덤히 보아왔던 죽방렴을 가까이에서 보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가 가득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죽방렴, 창선대교, 지족항을 뒤로하고 배는 서서히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듯한 금산(681m), 내산의 단풍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이로움과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평소 산을 즐겨 찾아 설악의 단풍, 지리산 10경 중의 으뜸이라는 피아골 단풍 등을 보았지만 바다에서 바라보는 단풍이 물든 산 전체의 모습은 과히 그 어느 곳의 단풍보다 더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이른 아침 지족항을 출발할 때 호수와 같이 잔잔하던 바다는 넓은 바다로 나아갈수록 파도가 제법 일렁인다. 혹시나 세존도 구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세존도로 향하면서 오늘 안내를 맡으신 수산과 담당 팀장님의 주위 섬들에 대한 안내멘트가 이어진다.

소가 드러누운 모습의 수우도, 옥녀의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오는 사랑도의 옥녀봉 등등의 설명에 “아! 저곳이 그 곳이구나!” 평소 궁금했던 섬들의 이름들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같이 승선한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모습들이다. 배는 속력을 붙여 미조

항을 뒤로하고 세존도를 향해 더욱 내달린다. 세존도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파도의 일렁임은 한층 더 심하다. 몸이 이쪽으로 쏠리고, 또 저쪽으로 쏠리고, 좀체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때 권영준 팀장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배안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발바닥에 힘을 주고 오무리면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에 양 발바닥에 있는 대로 힘을 주고 오무려 보았지만 웬걸, 더욱 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나보다.

*그러는 사이 하나의 까만점으로 보이던 세존도의 모습이 점차 가까이 다가왔다. 그 옛날 석가세존께서 금산에서 돌배를 만들어 타시고 놀다가 금산 쌍흥문을 지나 세존도의 한 가운데를 뚫고 나가 생겼다는 전설의 섬 세존도의 뺨뚫린 구멍, 사진에서만 보아왔던 그 모습이 점차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해에서 태어난 사람도 평생 한 번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福이 있어야 올 수 있다는 세존도에 도착했다. 오늘 배에 승선한 사람들 모두가 福이 있는 모양이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와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려나(속으로 우리들의 소망을 빌어본다)...

진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배는 선수를 틀어 백도, 소치도를 향해 속력을 올린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 금산의 보리암 터가 명당은 명당인가보다. 바다의 어느 방향에서 봐도 보리암은 잘 보인다고. 그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갈매기 똥으로 뒤덮여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여 옛 사람들은 백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백도, 소치도를 거쳐 여수 신항만을 돌아 우리나라 최대의 석유 비축기지과 호남정유 부두를 거쳐 여천 국가산업단지 내로 배가 들어서자 오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굴뚝마다 내뿜어대는 연기와 매립공사로 인한 소음, 컨테이너항으로 드나드는 수만, 수십만 톤급의 배들, 남해 앞바다와 비교되는 먹물빛 바다! 과연 이곳에 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 왜 우리 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를 벌였었는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광양 컨테이너항(5만 톤급 배 25척이 한꺼번에 접안할 수 있다고 한다)이 완전 개발되고, 또한 하동화력발전소 5, 6호기도 완공되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리라. 그때는 이 바다는 어떻게 되나, 우리 어민들은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배는 칙칙한 여친공단과 광양항을 뒤로한 채 남해대교를 향해 달린다. 멀리 바다 위에서 바라본 남해대교의 색깔도 칙칙한 바다 색깔과 마찬가지로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인다. 빨리 옛(빨간색)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남해대교로 향하는 중간에 고현면 갈화 앞바다의 가두리양식장을 방문하였다. 우럭양식장이라고 한다. 어민으로부터 양식장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배는 남해대교를 통과하여 강진만 해역으로 들어섰다. 현재 강진만은 어장정화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바다가 깨끗해야 고기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양식장도 잘 될 수 있으리라.

멀리 창선대교가 보이는 것을 보니 이제 오늘의 일정이 거의 끝나는 것 같다. 오늘 하루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육지에서 볼 수 없었던 남해 해안선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와 상반되어 죽어가는 바다의 모습!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이 밀려든다.

****전국의 속기 동지여러분!**

남해군은 유인도 3개, 무인도 65개 등 총 6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해안선 길이는 302km이고 제주도, 거제도, 진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며 1973년 남해대교가 놓이면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2002년 월드캡캠프를 유치한 고장! 깨끗한 남해!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남해로 꼭 한번 오십시오.

새 희망

정혜숙(제주시의회)

시간의 영속에 어김없이 올 첫 해(陽)가 구름을 비집고 또 떠오른다.
나는 일출봉에서 해와 만났고 꼭 오늘이 아니라도 꼭 일출봉이 아니라도
나는 매일 해를 보려고 노력한다.(일출봉 있는 곳이 나의 고향임)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해를 보면 자연의 숙연함보다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꼭 해야 될
무언가 나의 목젓을 타고 아랫배 밑까지
서서히 싸하게 꿈틀거린다.

그러나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한라산을 백두산으로
바꾸어 갖다 놓을 만큼의 패기
누워서 하루 서너 채의 빌딩을 짓는 나의 백만장자의 꿈은
어느새 꿈꾸는 것조차 부끄럽고 허망하다.
이렇게 나의 희망은
올해의 희망보다는 더 많은 죽은 세포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나의 시간을 누가 기다려 줄까?
나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줄까?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미스터리인 것이다.
내가 비록 저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
변변한 등지조차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새이지만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을 무색케 하리라.

늘 첫 마음으로

김 지 속(2001년9월입사)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에 이끌리듯이 내가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대학 4학년생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나 역시 진로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내가 즐겁게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일까?’ 당시 내 머리 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100여 가지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놓은 작은 책자를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소개한 글이 내 눈에 번쩍 띄었다. 그렇다, 정말 ‘번쩍’ 띄었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기사를 본 순간 일종의 계시같은 것을 받는 느낌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평소에도 워드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 정치외교학과라는 전공 덕분에 리포트를 10장?20장씩 썼던 탓에 워드는 500타 가깝게 치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문서작성에도 웬만큼 자신이 있었던 나는 망설임 없이 속기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 책자에 나온 대로 적성검사 등 몇 가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나의 베스트 직업으로 꼽히는 몇 개의 직업 중에 속기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속기를 시작하면서 속기사로서 여러 방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속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처음부터 국회만 바라보기로 했다. 어느새 졸업도 하고 1급 자격증도 땀는데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 발표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법원이나 다른 여러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국회가 아닌

곳에는 원서 낼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정했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길을 거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기다리던 국회시험이 발표되었고 나는 시험에 응시했지만 필기시험을 치른 후 내 느낌은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필기시험이 있기 두 달 전부터 시험준비를 시작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내 나이 스물 다섯이 되도록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나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나는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필기시험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실기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실기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의 실기시험결과는 낙방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했던 국회시험에 대한 나의 첫 도전은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나는 국회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고 다음번 시험 공고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뜻밖에 연락이 닿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그럭저럭 적응을 잘해 나가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닌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생각보다는 훨씬 빠르다 싶게 2001년 국회속기사 채용공고가 났다. 평소에 실기시험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해 두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다니던 회사를 올 2월까지만 다닌 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국회에 입사하는 것이 나의 꿈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결심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실업난이 정말 심각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괜히 그만두었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망설여졌고 부모님께서도 나름대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내 결심에 무척 놀라셨다.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는 당신 딸이 격정되었음이라. 그렇지만 국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국회시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던 나였기에 항상 나를 믿어주셨던 부모님께서서는 이번에도 나의 편에서 주셨다.

필기시험 합격에 이어 실기시험 보던 날.

이번에도 떨어지면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 하는 강박관념에 첫 시험 때보다도 훨씬 긴장한 나머지 정말 손을 바르르 떨며 시험을 치렀고 그렇게 겨우 시험을 치러낸 나는 떨어졌다고 자포자기하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며칠을 보냈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적이던 나의 생각 저편에는 역시 변호사 사무실에 그냥 다녔어야 했나 하는 후회도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발표 결과는 합격!!! 결국 내가 해낸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그랬던가, 알에서 깨어나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가 속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의 선택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국회.

합격자 발표 후 신입직원을 위한 연수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 경내를 밟았을 때 나는 드디어 내가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한 행복과 벅찬 감동을 느꼈다. 3주간의 연수가 끝나고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나는 감사원으로 국정감사 나가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기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늘 연습하던 것이었지만 실전이라는 생각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음 대면하는 선배님들도 어렵기만 했다.

출장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나로서는 재미도 있었지만 신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연습 없이 바로 국정감사에 투입되어 쌓여만 가는 원고들과 사이사이 열리는 본회의?위원회회의 원고들까지 겹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힘들기는 했지만 바로 국정감사에 합류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마냥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배님들과의 거리를 한층 가깝게 좁혀 준 것이 바로 국정감사였기 때문이다.

신입과정 연수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 같이 느껴진다. 그만큼 바쁘고 정신없이 보낸 탓일 것이다.

내가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던 까닭은 적성에 맞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정한 속기사가 되려면 항상 책과 신문 등을 가까이 하고 끊임 없이 공부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단히 자기계발을 해야만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언은 속기사를 평생 직업으로 선택한 내게 언제나 신선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입사해서 지금까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서툴기만 한 나를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잘 이끌어주신 여러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지면을 통해 늘 첫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자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국회사무처 속기1과2담당)

“速記界”와의 인연

최혜련(2001년9월입사)

1. 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 준 “速記界” .

1996년 봄, 내가 다니던 대학도서관의 구석진 책꽂이에서 나는 “속기계”라는 책을 처음 보았다. 70년대 초에 발행되었던 몇 권의 책만 있었고 80년대나 90년대에 발행된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발행되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책인 줄로만 알았다. 速記界라는 책이 꽂혀 있던 자리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자리여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나는 늘 그 자리에 앉았고 공부하다가 가끔씩 그 책들을 꺼내서 읽어보곤 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아주 옛날 이야기들이 많아 무척 흥미롭게 읽곤 했다. 그 중에 발언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과 느린 의원을 비교?조사해서 작성해 놓았던 표는 아직도 내 기억속에 남아 있다.

1997년 봄, 학교에 교양과목으로 영어속기 과목이 개설되었다. “速記界”로 인해 마침 속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던 나는 그 과목을 신청하여 2학기에 걸쳐 영어속기를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1주일에 2시간인 강의가 휴강하는 날이 많았고 배우는 학생 대부분이 영어듣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도 배우지 못한 채 아쉽게 끝을 맺어야 했다. 그러던 중 1998년 초, 우연히 컴퓨터속기를 알게 되어 학원을 다니며 컴퓨터속기를 배우게 되었다. 학교생활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속기를 배우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그렇게 속기를 배운 지 9개월만에 3급 자격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결과는 불합격,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던 나는 너무나 속상했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어느덧 졸업은 다가왔고 나는 흔히 말하는 ‘백조’생활로 접어들었다. 속기를 다시 해 보고 싶었지만 학원에 갈 사정이 안 되어 집에서 속기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혼자서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했는데 문득 약자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독타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자가 없는 책을 고르다 보니 마침 친구 어머니께서 졸업선물로 사주신 성경책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약 3개월간 일요일을 빼고 하루에 21페이지씩 꾸준히 성경책을 치기 시작했다. 다 치고 나니까 3급 자격시험에 떨어졌던 내 실력이 거의 1급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다. 물론, 나의 신앙심도 한층 더 성장되었다. 일거양득이었다.

가끔 속기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공부방법을 물어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성경치기를 권한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여러 글자들이 많이 나오고 분량도 많은 성경책은 꾸준히 독타연습을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봄, 두 번째 속기시험에서는 1급에 응시했고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2. 나를 국회로 이끌어 준 “速記界”

속기를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국회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채용시험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말 그대로 꿈으로만 접어두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의정부시의회 속기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의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인연인지..... 나는 그곳에서 “速記界”라는 책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최근에 발행된 것까지 캐비닛안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본 순간 너무나도 반가웠고 내 운명의 어떤 예감같은 것을 느꼈다. 그 책 내용 중에는 현직 국회속기사가 쓴 글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34호에 실린 임희용 선배님의 사진(컴퓨터속기 하시는 모습)과 유미형 선배님의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라는 글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37호에 실린 박정현?주정순 선배님의 ‘새내기 속기사’라는 글은 나로 하여금 꼭 국회속기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 각오하에 나는 언제 있을지 모를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에 대비하여 필기시험공부를 시작했고 의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책도 보고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실기실력 향상을 위해 남몰래 연습하기도 했다. 그렇게 열

심히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해 국회속기사라는 행운이 내게 주어졌다. 2002년을 며칠 앞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숨가쁘게 뛰어온 시간들이었다.

시험공부 한다고 캄캄한 새벽에 출근할 때 격려해 주셨던 경비아저씨,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공부하다 보면 점점 환하게 밝아지던 창문, 국회속기직 원서접수를 담당하신 분이 ‘꼭 붙어라’ 하면서 힘껏 찍어주셨던 접수도장, 필기시험을 보기 전날부터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도록 퍼붓듯이 내리던 비, 필기시험 후 가슴을 졸이며 함께 답을 맞추어 보았던 친구들의 얼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보고서 가족들과 함께 잘라 먹었던 케익, 숨이 막힌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었던 실기시험, 실기시험 합격 후 기쁨에 넘쳐 잠 못 이루었던 밤, 합격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던 부모님, 또 축하해 주시던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국회속기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올해, 2001년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3. 바로 그 “速記界” 에 글을 쓰고 있는 나.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늘 읽기만 하던 速記界에 잘 쓰지 못하는 글이나마 내 글이 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무척 기쁘다.

국회속기사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더이상 신경 쓸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국회에 입사해서 제225회 정기국회를 치러보니, 실수도 너무 많았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들어온 곳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배워서 조금 지난 후에는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후배, 국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 그야말로 멋진 속기사의 모습으로 서고 싶다.

(국회사무처 속기2과4담당)

협 회 동 정

☒ 이희규 회장

- IMEMO(세계경제정치연구소)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01.5.9 ~ 01.5.19)
- 국회 월드컵지원특위 위원으로 월드컵 홍보차 영국 런던을 비롯 유럽 각국 방문(01. 5. 19 ~ 01. 5. 25)
- 한국·대만 의원연맹 부회장으로 쌍십절기념 대만 방문(01. 10)
-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로 ‘한국경제의 미래’ 강의(01. 11)
- KBS 장애인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01. 12. 3)

☒ 이사회 소식

- 제187회 이사회(2001. 3. 15)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첫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협회 업무보고(01.2.20) ▲법인정기보고(01.2.27) ▲정관개정 허가신청 - 2인 에서 5인으로 부회장단 증원(01.2.27) ▲재정현황보고(01.3월 현재) 등.
이어서 2건의 부의안건(부사장선임의건, 부장임명건의)을 상정하여 의결.
기타사항으로 ▲2001년사업예산(안)에 대해 문광부로부터 예산감액을 요구받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협회 자문위원에 권용태, 신세화, 황인하, 성천영, 채강희, 김선필, 한동춘 회원 위 축. 이어서 ▲지방의회속 기사협회의 이사 2인 요구문제는 내년 정기총회 시 적극 반영토 록 하고, 올해에는 지방의회협의회장을 이사로 하고 지방에 회원부장을 두는 것을 협의하기 로 함. 그 외에 ▲홈페이지 관리 전담부서를 회원부로 하고 총무부와 홍보부에서 적극 협조 하기로 결정.
- 제188회 이사회(2001. 4. 30)
보고사항으로는 ▲법인등기완료(01.4.23) ▲협회소식지 제9호 발간·배

포(01.3.28) ▲문화관광 부 예산확정(01.3.31) 등.

다음으로 ▲가항인 인터스테노총회 참가의 건을 상정, 국제부의 보고를 받고 참가인원 및 구 체적 인선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일임기로 함. ▲나항인 협회 속기업무능력인증시험에 관한 건은 임재룡 이사의 제안설명 후 자격심사위와 연구위, 회원부에서 문제점을 보완, 추후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

기타사항으로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 계획안에 대해 사업부의 보고(개최일시는 2001.6.9(토)-6.10(일), 장소 및 세부일정은 이사장과 사업이사에게 일임)를 듣고 홍순관 이사로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함.

☒ 제34회 정기총회 개최

2001년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2000년도 결산과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임원선임의 건 등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진행됨.

정관변경의 주요내용은 기존 2인의 부회장을 5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의해 임기가 만료 된 임원진에 이어 신임 이희규 회장, 김기영·최황수·정명길·박광택·고태중 부회장이 선출 됨.

☒ 원로회원 모임

2001년 4월 27일 신임 신회동 이사장 주축로 여의도 신동양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로회원 모임 이 있었음. 총 열세 분의 회원님이 참석하여 신임 이사장 취임축하와 협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

☒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

2001년 6월 9일·10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이천 지산리조트에서 총 19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주제발표로는 입법과정의 실제에 대하여(주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토론 문화와 기록문화에 대하여(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른 속기실무의 대응(협회 김창진 감사) 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있었음.

☒ 속기경기대회

2001년 6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제9회 속기경기대회 개최.

총 49명이 참가하여 금상 유상미, 은상 홍효민, 동상 이경진. 시상식은 2002년 정기총회 시 있을 예정임.

☒ 속기정보화워크숍

2001년 7월 7일 부산광역시 미래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

부산광역시·구의회 속기사 및 경상남도·시·군의회 속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기정보화 촉진 및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사기진작방안 모색과 협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강의와 토론시간을 가짐.

☒ 제43차 인터스테노총회 참가

2001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제43차 인터스테노총회에 홍순관, 김란희, 한기수, 이기욱 회원이 참가하여 세계 속기계의 동향과 각국 의회의 변화된 기록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

회 원 동 정

승진 · 축하합니다

- 이재현 : 산업자원부 행정주사→사무관(00. 12)
- 김형곤 : 코스닥 관리부장→증권업협회 상무(01. 4)
- 김치원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부이사관→이사관(01. 2. 8)
- 최미영 : 파주시의회 8급→7급(01. 3. 5)
- 김은경 : 국회사무처 속기주사보→속기주사(01. 4. 1)
- 박대성 :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원회 서기관→부이사관 (01. 7. 3)

전보 · 수고하셨습니다→반갑습니다

- 강종원 : 국회사무처→특별위원회 전문위원(01. 2. 8)
- 노희남 :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중부지역본부장(01. 8)

임용 · 축하합니다

- 김지숙 · 윤미영 · 한연미 · 박소연 · 이수경 · 최혜련 : 국회사무처 속기과 (01. 8. 7)
- 최영립 · 조윤희 · 이경진 : 국회사무처 속기과 계약직 발령(01. 11. 10)

복직 · 반갑습니다

- 차공순 : 국회사무처 속기과 (01. 11. 10)

휴직 · 힘내세요

- 조미경 : 국회사무처 속기과 (01. 9. 21 ~ 02. 8. 31)

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원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00. 10. 16)
- 광계안 : 국회사무처 속기과(01. 4. 4)
- 정주현 : 국회사무처 속기과(01. 4. 5)
- 김미선 : 오산시의회(01. 5. 23)
- 민성식 : 부산시의회(01. 6. 19)
- 임용춘 : 수원시의회(01. 6. 30)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성천영(국회사무처) : 미국 단기해외연수(01. 3. 9 ~ 4. 11)
- 안지철 고경효 조신자(국회사무처) : 단기해외연수(01. 3. 26 ~ 4. 6)
- 정순화 박금선(국회사무처) : 단기해외연수(01. 12. 20 ~ 12. 31)
- 유영란(서울시 마포구의회), 이기옥 · 우순덕 · 윤영선(경상남도의회), 권은선(전라북도 전주시의 회) : 지방의회직원연수과정 국회사무처 연수국(01. 3. 12 ~ 01. 3. 16)

수상 · 축하합니다.

- 김창진(국회사무처) : 근정포장(02. 1. 2)
- 권영찬 · 홍기표(국회사무처) : 대통령표창(02. 1. 2)
- 김란희 · 유희연(국회사무처) : 국회의장표창(02. 1. 2)
- 문선희 · 송동우(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총장표창(02. 1. 2)

개업 · 발전을 기원합니다

- 윤태원 : 윤컴system 개업(01. 2. 24)
- 허광현 : 세종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01. 2. 24)

속기계 원로 이강현 선생님(동방식) 소식

이강현 선생님께서는 6·25전쟁 당시 지리산공비토벌로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으셨다고 합니다.(1953. 11. 10) 그런데 제대 후 이사를 다니시던 중 6·25참전훈장, 공비토벌훈장, 유엔군참전훈장 등과 함께 수여받으셨던 화랑무공훈장을 잃어버려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우시고도 여태껏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육군본부 상훈담당관실을 통해 여러 번 진정을 하고 선생님의 안타까움을 전하셨지만 군번·계급이 없다는 이유(무장공작대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로 번번이 훈장수여 확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6·25 50주년 기념을 계기로 그당시 같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써내면서 이강현 선생님의 화랑무공훈장 수여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유공자증을 받으셨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목소리만은 늘 힘이 넘치셔서 좋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태중 부회장님 소식

98년 1월 1일부터 집행관으로 재직하셨던 고태중 부회장님께서 2001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기타 소식

- 전난영 : 충남 당진군 합덕초등학교→서정초등학교로 전근(01. 3. 1)
- 불우이웃돕기 성금 : 2001년 6월 9일~10일 이천 지산리조트에서 열린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 도중 즉석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으로 31만 4450원의 성금이 모였는데 당시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2001년 12월 27일 장애어린이 보호시설인 '천사의 집'에 전달하였음.

■ 편집후기

바톤을 넘겨받은 후 부담감과 함께 열심히 해 보리란 다짐을 했었으나 열심히로만 그친 것은 아닌지 내심 염려스럽네요. 다음 호 더욱 기대해 주시고 우리 홍보부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려요.

- 蘭 -

홍보부장직을 맡으면서 내가 느낀 부담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속기계를 발간하는 일이었다. 먼저 발간되었던 속기계들보다는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니, 최소한 그것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하는 중압감이 정기국회 내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찌어찌 해서 제38호가 발간되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많은 이해 있기를 바라며 다음호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다짐해본다.

- 文 -

협회 일 하시며 수고하는 분들 보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기에 선뜻 홍보부 일 하겠다고 했었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지.....

- 白 -

봄처럼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한결 온화하게 만든다.

속기계를 정리하면서 이른 봄기운을 느껴 본다.

- 崔 -

언제쯤에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더 잘, 더 열심히 하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죽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늘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속기계가 우리들의 힘들고 긴장된 삶에 한숨 쉬어가는 페이지가 되었으면 싶다. 휴 ~ ~

- 奉 -

이번 속기계는 글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앞으로 협회기자로서 잘해 나갈 수 있을지를 반성하는 기회였다.

회원여러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원고 많이많이 내주세요. ^_^

- 香 -

< 회비 · 발전기금 납입 안내 >

-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 협회발전기금 :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 회비납부 의무가 평생 면제됨.
- 보 낼 곳
발전기금 : 농협 온라인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앞
회 비 : 농협 온라인 036-01-087944 정 숙(협회 재정부장) 앞

2001년도에 협회발전기금을 내 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태중 · 김기영 · 박광택 · 정명길 · 최황수 · 유순태 · 권영찬 · 최예숙 · 김란희 · 김형곤 (이상 30만원) · 광계안 (20만원)

※ 여러분이 내 주신 회비와 발전기금은 협회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비관련 문의사항은 협회 총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88-2373)

◎ 투고를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속기과) / (02) 788-2374, 2474

내용 :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회상기, 수필, 시, 시조, 산문, 제언 등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www.steno.or.kr)에 들어오시면 협회소식 및 속기계 · 소식지 등 협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다양한 정보공유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읽을 거리와 회원소식, 회원논단, 인터뷰 등 회원들의 공간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우리들의 공간인 홈페이지가 좀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www.steno.or.kr 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관련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협회 홍보부 (788-2374)